

2019 Anabaptist Conference



아나뱃티스트들이 살아온 오랜 방식- 공동체를 말하다!

1.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메노나이트 선교사 김복기 목사)
2.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와 평화의 삶 (침례신학대학 김난예 교수)
3. 세계의 예수공동체를 찾아서 (하늘숲-좋은나무 공동체 설은주 목사)
4. 화해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의 실제 (동북아 MCC Chris Rice)
5. 한국형 공동체의 삶! 그 실제! (밝은누리 공동체 최철호 목사)



김복기 목사



김난예 교수



설은주 목사



크리스 라이스



최철호 목사

일시: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오후2시-6시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실

후원: 한국공동체교회 협의회, 한국메노나이트교회 연합, 브루도호프 공동체

주관: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목차

1.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를 말하다 ----- 김복기
2.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와 세상살기----- 김난예
3. 세계예수공동체의 영성과 삶 ----- 설은주
4. Christian Community and the Reconciling Process in Community Life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생활에서의 화해과정 ----- 크리스 라이스
5.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공동체)운동 -----최철호
- 밝은누리를 일구며... -

아나뱃티스트¹⁾ 공동체를 말하다

김복기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선교부)

1. 서론

공동체와 교회를 주제로 한 많은 논문과 글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서에는 코이노니아와 연합을 강조하는 개념은 있지만 공동체라는 단어는 없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교회공동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교회의 양적 최전성기를 누리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공동체’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였다. 물론 공동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공동체로 알려져 있던 동광원, 예수원, 두레공동체 등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교를 나누고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교회와는 뭔가 구별되어 있는 생활공동체, 수도원공동체 혹은 농촌생산공동체 등으로 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레교회와 같이 공동체와 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어 교회와 공동체를 분리해서 표현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도 마찬가지다. 다일공동체와 다일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단일체로 이해했다. 오히려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교회이지 공동체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더 나아가 교인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은근히 백안시하거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쯤으로 여겼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동체와 교회가 밀월관계를 누리더니,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교회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공동체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분명하게 시기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신학교의 석사학위논문이라든지, 여러 학술논문을 조사해 볼 때 80년대부터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 대한 용어사용의 빈도와 연구논문의 수가 증대하고 있다. 특별히 20세기 말을 거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공동체는 매우 관심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공동체를 주제로 각종 세미나와 연구발표가 진행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든 공동체든 실체가 없이 연구발표에만 그친다면 아무리 멋진 비전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자성 어린 목소리가 붓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의 수는 여전히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

1)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는 재세례파, 재침례파, 재세례신앙운동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아나뱃티스트”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위의 용어들을 다 반영하였지만, 아나뱃티스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2) 이성현, “21세기 교회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 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3.

3) 교회와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이 글에서는 신학석사학위 논문 10여 편과 박사학위 논문 1편, 그리고 학술논문 10여 편을 참고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목록을 살펴보면, 21세기 들어 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를 찾기 어렵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및 발표가 자칫 교회의 본 모습은 회복하려 들지 않고, 이름만 공동체로 바꿔 부르면서 심리적 만족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나마 풀뿌리로 잘 자라나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기독교 공동체에 관한 논문과 서적들을 중심으로 1. 기독교 교회 및 공동체 이해에 대한 개략적 흐름을 살피면서 교회와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후 본 발표의 주제에 해당하는 2.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른 지면을 통해 수차례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개혁 및 아나뱃티스트 운동 관련 논문들에 잘 나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아나뱃티스트 운동 내에 40~50여 개의 작고 큰 그룹이 존재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후터라이트, 아미쉬, 브루더호프, 메노나이트 공동체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발표되었던 아미쉬와 브루더호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후터라이트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아나뱃티스트라고 할 때, 그 정의를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발원한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가톨릭도 아니고 루터와 프로테스탄트운동도 아닌 제4의 종교개혁운동,⁴⁾ 근원적(radical, radix, 뿌리라는 뜻으로 근원적, 혹은 급진적으로 번역함) 개혁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나뱃티스트를 이해할 때 16세기에 있었던 하나의 기독교 개혁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의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perspective)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가하고자 한다.

2.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정의

1)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역사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신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이들은 구약의 회중으로부터 신약의 회당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신약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모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으로 제시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신약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성서의 용어는 '에클레시아'다.⁵⁾ 고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의 용례는 폴리스의 시민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러한 헬라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볼 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4) 영남대 박주원 교수는 "대안공동체에 나타난 '대안'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정치사상적 성찰"(역사비평, 2008) 350-373에서 제3의 길, 제4의 길과 같은 표현은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뱃티스트를 제4의 개혁운동이라고 설명할 때는 가톨릭 내의 개혁도 루터나 츠빙글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의 개혁도 아닌 전혀 방향성이 다른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제4의 개혁운동이라고 칭하였다. 조지 윌리엄스가 「성령주의와 아나뱃티스트 종교개혁자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기독교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근원적 개혁 Radical Re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5) 김현진, 「공동체 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24-26.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⁶⁾ 본회퍼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로 보았다.⁷⁾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敎會가 아닌 交會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회의 속성에 가르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앞서 친교, 교제, 즉 fellowship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약에서 시작되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김현진은 「공동체 신학」에서 구약 유래설과 본격적 출발설을 모두 포용하였다.⁹⁾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상을 설명함에 있어 구약과 신약이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 표시라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였다.¹⁰⁾ 이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정의내리고자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에 덧붙여, 교회론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영향력이 사회 전 영역에 끼쳐졌지만, 교회가 그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개혁이 관주도개혁에 머무르자 이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이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그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가장 의미심장한 운동이었다.¹¹⁾ 아나뱃티스트 교회론에 대해 연구한 가이 허쉬버거, 헤롤드 벤더, 로렌스 버크홀더, 존 드라이버, 노르만 크라우스, 존 하워드 요더 등의 학자들은 모두 교회를 신자들의 공동체로 설명하였다. 16세기 한스 덴크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설명하였다.

우선, 20세기 중반, 미국 교회사학회장을 맡으면서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주류 기독교계에 소개했던 헤롤드 벤더는 아나뱃티스트의 핵심가치를 제자도, 평화, 공동체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공동체와 교회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아나뱃티스트 신앙이 추구하는 교회의 기본 비전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진실한 형제애와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랑의 실천은 독실한 감성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실제적으로 소유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²⁾

로렌스 버크홀더는 교회의 존재이유와 본질에 대한 질문은 지난 1900년 동안 신학자들이나 평신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던져졌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는 질문이라고 하였다.¹³⁾ 교회란 무엇인가는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던져진 핵심 질문인데, 가톨릭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직자들의 종교로 교회를 이해했던 반면, 종교개혁가들은 "죄와 구원"을 위해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교회에 대한 답은 비켜갔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 강론의 중요성은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회중교회로까지는 가지 못하였다. 참된 신자들에 의한 교제, 혹은 구원받은 공동체로까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

6) 도날드 밀러,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23.

7)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22.

8)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무실, 1987), 106.

9) 김현진, 「공동체 신학」, 29.

10) 김현진, 위의 책, 29-50.

11) Harold Bender, 「재세례신앙의 비전」, 김복기 역, (춘천: KAP, 2008), 16.

12) Harold Bender, 위의 책, 100.

13) Lawrence Burkholder,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8, 1.

다고 말하지 못했다. 교회의 핵심 내용으로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다. 참된 신자들에 의한 교제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난다는 주장과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주장은 아나뱃티스트들에 의해 회복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익숙한 거듭난 신자들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고 거듭난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 즉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앙고백에 의한 교회 멤버가 중요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9,10은 메노나이트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구절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구절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교제(fellowship), 영적인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 증언의 공동체로 이해하였다.¹⁴⁾

존 하워드 요더는 「교회, 그 몸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서 구성원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적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늘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참 세상으로서의 교회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지침이었다. (1) 교회의 매는 것과 푸는 것 - 용서와 화해 (2) 함께 빵을 떼는 제자들 - 성찬식 (3) 세례와 새로운 인류 - 세례 (4)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 - 은사의 다양성 실천 (5)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으로서 열린 회의에 대해 설명하였다.¹⁵⁾

또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소개한 노르만 크라우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구체화된 교회를 (1)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개인 (2) 예수의 공동체 (3) 사도의 공동체 (4) 구원받고 구원하는 공동체 (5) 평화의 공동체 (6) 사랑의 공동체 (7) 증언하는 공동체로 설명하였다.¹⁶⁾ 무엇보다 그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20세기 21세기라 할지라도 공동체라는 맥락이 없이 개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한편, 남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이자 교회사 학자로 활동하였던 존 드라이버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교회 내에 존재했던 공동체성의 변화를 역사적 추이와 함께 탁월하게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설명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설명이지만,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학자들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최악의 변곡점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설명해왔다. 아울러 「교회의 얼굴」에서 그는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12가지 이미지를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폴 미니어가 교회의 핵심 정체성과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백 가지가 넘는 이미지를 제시한 「성서속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를 토대로 정리

14) Lawrence Burkholder,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8.

15) John Howard Yoder, 「교회, 그 몸의 정치」, 김복기 역, (대전: 대장간, 2012).

16) Norman Kraus, *The Community of the Spirit*, Herald Press, 1993.

한 이미지들이다.¹⁷⁾ 그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4세기 이전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콘스탄틴의 우회” 혹은 “회심의 변질”을 통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가 자기 이해를 왜곡하여 재구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하였다.¹⁸⁾ 성서 속의 이미지를 왜곡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자기 이해를 위한 주된 이미지를 신약성서가 아니라 세속 사회로부터 이끌어 냈다”고 지적하였다.¹⁹⁾ 그는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성서의 이미지를 1) 순례 이미지(그길, 임시체류자, 가난한 사람들) 2) 새로운 질서 이미지 (하나님나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 3) 백성 이미지(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목자와 양떼) 4) 변혁 이미지 (소금과 빛 그리고 도시, 영적인 집, 증언 공동체)로 설명해 냈다. 그는 교회를 변혁 공동체로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공동체”²⁰⁾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교회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모임, 곧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이견과 상관없이 성서가 드러내고 있는 가장 분명한 교회의 모습은 마태복음 16장의 약속과 18장에 기록된 교회의 운영지침이다.

여러 연구가들이 밝히고 있듯이 교회의 정의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4복음서 중에 이 단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만 등장한다.²¹⁾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후 사도행전에서 실체가 드러난다. 드디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사건과 더불어 역사 속에 등장한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후 모든 사건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 발전되어 왔는지는 사도행전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성령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조직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교회행전’이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담보한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논의할 때 구약의 기록으로 연결하는 시도는 인류 역사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타당한 듯 보이나, 엄밀하게 말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교회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그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적인 교회가 출현한 것처럼 고백 위에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를 기초로 어떻게 신학화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는 교회의 비전을, 사도행전에서는 그 비전의 실체를, 그리고 서신서들에서는 실체를 바탕으로 신학적 고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로마서와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17) John Driver, 「교회의 얼굴」, 전남식 이재화 옮김, (대전: 대장간, 2015).

18) 위의 책, 26-27.

19) 위의 책, 27.

20) 위의 책, 253.

21) 김현진, 「공동체 신학」, 24-25.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등은 교회론과 목회론으로 현실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용어상의 정의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신약 성경을 통해 원형으로 제시되는 교회의 모습, 구성원, 구성원들의 관계로서의 성령의 교통하심, 상호책임, 교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아나뱃티스트 등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라 사는 신자들의 무리”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의 무리를 칭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에 대한 설명 또한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 맥락에서의 설명과 신학적 맥락에서의 설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학적 맥락에서 다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자.

①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사회학적 맥락에서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개념과 그 이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학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농경사회의 소실과 도시사회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페르디난트 튀니스는 모든 인간관계를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셀샤프트(Gesellschaft)*로 유형화하면서 공동체를 설명했다. 19세기에 일어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토마스 벤더가 주장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사회학은 19세기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출현하였는데, 특별히 젊은 독일학자였던 페르디난트 튀니스는 사회의 도시화 및 자본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사회학적인 개념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족과 마을 중심의 면대면(face to face) 관계가 서로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산업사회, 도시사회로 변화되면서 근대적인 공동체가 와해됨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는 도시-산업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던 카를 마르크스의 동시대인이기도 했다.

1887년 32세였던 튀니스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분석을 *게마인샤프트와 게셀샤프트(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라는 책에 담아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사회적 변화에 괄목할 만한 개념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정의하였다. 영어의 번역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없으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는 공동체(community)로 *게셀샤프트(Gesellschaft)*는 사회(Society)로 번역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가족, 친척, 친구 네트워크, 이웃 등은 연대감으로 엮인 게마인샤프트의 전형적인 예로써 따뜻함, 친밀감,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힘든 배타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한편 도시로 대표되는 게셀샤프트는 경쟁과 비인격적인 특성과 함께 인위적으로 구성된 인간집단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로, 모든 연합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사람들을

게셀샤프트(이익사회)로 설명하였다. 튀니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를 두고 저마다 도시화, 근대화, 문명화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에밀 뒤르켐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였고, 찰스 쿨리는 작은 마을이나 가족이라는 “1차적(primary)” 면대면 관계가 도시 사회의 비인간적 “2차(secondary)”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²²⁾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도시화와 관계의 복잡성이 가속화되면서 19세기 공동체 이론인 튀니스의 *게마인샤프트-게셀샤프트* 유형론에 역사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학 이론으로서 공동체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대학교의 교수이자 사회학자였던 토마스 벤더는 그의 책 「Community and Social change in America」²³⁾에서 미국 역사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 초창기에 농경 중심의 공동체가 보다 복잡하고 시장-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면서 맞이하게 된 공동체 경험에 대해 기술하면서 사회학자 튀니스가 제시한 게마인샤프트(공동체)와 게셀샤프트(사회)의 사회학적 정의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역사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학에서 널리 알려진 게셀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의 개념 아래 과거와 현재에 자리해온 공동체의 장소성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마스 벤더가 새로운 방식의 이해라며 주장한 내용은, 미국이 건국될 초기에 존재했던 아주 단순한 농경 공동체가 도시개발과 시장중심 사회로 매우 복잡하게 변함에 따라 튀니스의 고정된 공동체-사회 유형도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미국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구조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하였다. “미국 역사 속에서 기존 사회이론들이 공동체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과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깊이 숙고된 공동체를 이야기 구조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현대 미국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문제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하였다.²⁴⁾ 그는 이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이미 정리된 질문들을 넘어서 미국 역사 속의 공동체와 관련된 새로운 이해, 질문, 관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학에 역사적 관점을 부여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가 설명하는 공동체의 의미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공동체의 개념은 그리스어 *폴리스polis*라는 단어를 통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을 던진 이래로 사회적 정치적 삶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근대 사회학자들이 공동체의 개념은 새로이 발견하고 있다. 공동체의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19세기 사회 사상가들의 주된 관심사들 중 하나였다. 근대(modernity), 도시화(urbanization), 자본주의(capitalism)는 모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사회 분석가들과 철학자들은 역사학적 주제로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과거와의 결별은 어떻게 이행되었는가? 만약에 과거와 어떤

22) Thomas Bender, *Community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1978, 18.

23) Thomas Bender, 위의 책.

24) 위의 책 xi.

결별이 이행되었다면,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환경 아래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러한 관심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까지도 학계 안팎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공개적인 토론과 학문적인 토론의 장에서, 이 공동체community라는 단어는 훌륭한 삶을 위한 비전과 관련되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공동체의 단어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저변에 깔려있다. 현대 미국인들은 도시화와 현대화가 일찍부터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과거 미국의 작은 마을과 도시를 파괴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 도시의 삶이 몰고 오는 소외의식, 사회적 무질서 및 가능한 다른 사회악에 대한 많은 토론들은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염려가 연장된 것들이다. 실제 상황이 어떻든지 이러한 공개적인 관심사들은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에 의해 증폭되어왔고,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 아래 공동체가 “침식(erosion)” “쇠퇴(decline)” “파괴(breakup)” “소멸(eclipse)”되어왔다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과연 현대적인 삶이 공동체를 붕괴시킨 것일까? 역사적 관점이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정의하는데 보다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역사가들은 만약 공동체를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듯이 - 자치구인 뉴잉글랜드의 작은 도회지로 정의한다면 현재 공동체에 대한 관점은 실제로 흐릿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또한 그런 정적인 용어(static term)로 정의한 공동체는 공동체 형성의 역사라는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공동체의 특정한 현상과 본질을 혼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동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는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질문은 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 정확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조화를 꾀해온 공동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이다.²⁵⁾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나 특정 시대에 얽매어 있는 정적인 모습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변화무쌍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 벤더는 그동안 학자들이 공동체의 구조와 의미의 변화를 실제 역사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며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지금 그 공동체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식으로 가정한다. 사회적 변화가 곧 공동체 파괴를 의미한다고 등치시키기 때문이다.²⁶⁾ 이는 아마도 도시 안에서 경험되는 사회적 관계가 비인격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분절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벤더는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최근 사회학적 이론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따르면, “공동체의 개념은 사회학의 개념단위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²⁷⁾ 그러기에 공동체는 정의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이다. 실제로 1955년 학자들이 사회과학에서 사용된 공동체의 정의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한 결과, 이 용어는 최소한 94개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²⁸⁾ 현재

25) 위의 책, 3-4.

26) 위의 책, 4.

27) Robert Nisbet, *The Sociological Tradition*, New York: Basic, 1966, 47.

사용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사회학적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란 특정한 장소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²⁹⁾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사회기관이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영역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더 큰 사회 속의 한 지역 혹은 작은 규모를 공동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동체 연구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역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규모란 대략 이웃으로 사는 마을에서 작은 규모의 도시 혹은 중소도시를 공동체로 언급하였다.

공동체를 언급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의 층위가 묻어나는 용어라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험적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어떤 장소로 정의하기보다는 사람들 간에서 기대되는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정의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정의된다는 뜻이기도 하다.³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토마스 벤더는 “과거에 수많은 구조적 형태를 취해서 설명이 가능했던 공동체는 상호관계와 감정적인 유대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³¹⁾ “케이 에릭슨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human surround’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본질로서 구체적으로 인접해있는 영역과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뉴잉글랜드의 작은 도시를 공동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의 정의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설명 없이, 가족, 이웃, 친구그룹, 사회계층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의 정의가 아니듯이 말이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형태들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특정한 형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³²⁾

또한 공동체는 이미 서로 공유하는 이해나 주어진 의무를 갖고 어떤 제한된 사회적 공간이나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제한된 사람들의 수자와도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해 공동체는 “우리we-ness”라는 공동의 감각이 공유되어 있다. 누가 멤버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공동체는 연합이다(A community is a communion). 마르틴 부버는 “진실한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는 그들이 동료라는 이유만으로서 서로 접근하고, 서로를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³⁾ 그렇다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28) George A. Hilery, Jr.,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rual Sociology*, 20(1955): 111-122. 조지 힐러리의 공동체의 정의들에 대한 연구는 이전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는 공동체는 최소한 한 두 가지 공통의 관계기반으로 지리적 범위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최소한 그룹의 연대감, 지리적 장소, 사회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급자족, 공동의 삶, 공유하는 의식, 공동재산의 정도, 이를 공유하는 목적, 기준, 방법들에 대한 이해, 제도, 지역성, 개성, 태도, 과정 등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특징을 공유한다. Thomas Bender,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각주 6), 97.

29) Thomas Bender, 5.

30) 위의 책, 6.

31) 위의 책, 7.

32) 위의 책, 7.

33) Martin Buber, *Paths in Utopia*, Syracuse Univ. 1958, 145. 이 점에 대해서는 글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스킷 팩의 한시적 공동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체 내에는 가족 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갈등이 존재한다.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존재의의를 가진다. 즉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이다.

이상의 토마스 벤더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볼 때, 공동체는 단순히 정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 없으며,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도 쉽게 정의할 수 없다. 1955년에 최소한 94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살펴보면 더욱 분화된 21세기에서 공동체를 이해할 때는 각 공동체의 장소성과 지역성에 얽매이기 보다는 하나의 관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

②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미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체라는 용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정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동상이몽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굳이 역사적 맥락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러한 동상이몽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공동체에 있으므로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해 그 용어의 소용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가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한 세대 전에 전 세계의 공동체를 방문하고, 평생 공동체 신학을 정립한 김현진 목사의 「공동체 신학」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국 교계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동체 및 교회 관련 논문들은 이 「공동체 신학」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해도 이 「공동체 신학」의 내용과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대부분의 뭉은 ‘김현진 목사의 「공동체 신학」을 참조하라’는 말에 모두 책임을 지우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³⁴⁾ 그가 정리한 공동체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동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 원형으로 공동체로 설정하였다.³⁵⁾ 여기에서 그는 공동체의 정의와 범위를 논하면서 철저성, 가시성, 갱신지향성이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하였다.³⁶⁾ 공동체의 모델로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 교부시대를 거쳐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3세기 동안 기독교는 “실제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³⁷⁾ 이러한 초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은 콘스탄틴 황제의 기

34)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들을 통해 발견한 것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언급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대부분 김현진 목사의 「공동체 신학」을 인용하거나 상당부분 그대로 차용하여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석사학위 논문은 오명림,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고찰과 의미,”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황대진, “이상적인 예수 공동체의 실현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구남전,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명식, “교회의 본질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구,” (장로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민한기,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회복을 위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재익, “교회공동체성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이다.

3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93-94.

36) 김현진, 위의 책, 94-95.

독교 공인으로 자하교회가 지상교회로 바뀌면서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득세로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적인 삶이 질시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세속화의 길을 걸으며, 이에 대한 저항 공동체로서 수도주의자(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등)시대, 중세시대의 수도원공동체(베네딕트), 탁발수도회(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완덴시안, 네덜란드 공동생활형제단, 피터첼시키의 체코형제단을 거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파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그 이후에도 개신교 내의 공동체운동(야곱스페너의 경건한 모임, 프랑케의 교육 공동체, 진젠도르프의 헤른후트 공동체, 웨슬리의 방법론자들, 디아코니아 자매회)과 근대 이후의 세계 기독교 공동체 운동(브루더호프, 떼제, 베다니공동체, 코이노니아 파트너스, 라브리, 레바플레이스, 세이버어처치)이 잘 정리되어 있다. 기독교역사 속의 공동체 운동은 도널드 던바의 「신자들의 교회」에서 언급한 12개의 교회 그룹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해 결국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신자들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⁸⁾

특히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 역사를 정리하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 교회’란 용어에 대해, “‘공동체 교회(community church)’라는 용어는 기성교회가 공동체성을 너무 상실한 나머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생긴 최근 용어”³⁹⁾라고 밝힌 점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왜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언제부터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는가?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공동체성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을 콘스탄틴 이후 시작된 교회의 규범화와 대형화 현상을 지적하였고⁴⁰⁾ 비본질적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⁴¹⁾ 특별히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게 된 원인으로서는 개교회주의,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성장주의, 물량주의가 언급되었다. 개교회주의는 개인주의의 시대사상이 교회로 들어온 폐해이며, 교회성장주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걸었던 한국 사회의 성공주의가 교회로 들어온 모습이며, 물량주의는 자본주의를 필두로 교회에 스며들어있는 mammon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지적하였다.⁴²⁾ 황대진은 여기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학교육, 교회의 경제적책, 교회내의 파벌 의식, 지역감정, 개인의 야망으로 분열된 모습을 추가하였고,⁴³⁾ 박지훈은 여기에 근본주의 신앙과 교파주의를 추가하였다.⁴⁴⁾ 이러한 교회 및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세계의 공동체와 한국의 공동체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는데, 기본 틀은 김현진의 공동체 신학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공동체 연구 사례로 소개된 곳은 주로 레바플레이스, 프랑스 떼제,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미국 워싱턴의 세이버어교회, 코이노니아 파트너스, 스위스 라브리, 후터라이트, 베다니공동체, 브루더호프 등으로 현재 교회에 부족한 공동체성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로써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아미쉬와 아이오나 공동체를 소개한 곳도 드물게 있었다. 한편 한국의 공동체 연구사례로는 거의 모든 논문이 예수원을 언급하였고, 그 외에 동광원, 가톨릭의 샤프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풀무원 농장사람들, 대한수도원,

37) 김현진, 위약책, 107.

38) Donald Dunbaugh, 「신자들의 교회」, 최정인 역, (대전: 대장간, 2015).

39) 김현진, 「공동체 신학」, 96.

40) 구남전,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 이성현, “21세기 교회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 모델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5.

42) 민한기, “한국 교회의 코이노니아(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6-40.

43) 황대진, “이상적인 예수 공동체의 실현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

44) 박지훈,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10.

디아코니아 자매회, 두레, 다일, 사랑방, 오두막, 아름다운마을, 예수마을, 예수공동체 우리집 등의 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연구들에는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은 많은 논문들이 공동체성을 연구함에 있어 1) 김현진 목사의 공동체 신학과 대천덕 신부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 2) 후터라이트나 메노나이트와 같은 16세기 재세례파(아나뱃티스트)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3) 재세례파 공동체의 예시 중에서도 후터라이트와 브루더호프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메노나이트 공동체로서는 레바플레이스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 4) 아미쉬에 대한 설명은 후터라이트에 비해 덜 소개하고 있다는 점 5) 공동체성에 대한 열망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깔려있다.

이제 이 글의 본문에서 소개할 아나뱃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잠깐 살펴보자. 우선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의 공동체라는 표제어 설명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백과사전에 따르면 공동체란 통상적으로 특정한 작은 지리적 장소에서 공통의 관심, 활동, 태도, 전통, 문화적 측면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동체는 마을, 읍내, 도시 혹은 행정구역을 지칭한다. 메노나이트들에게 공동체는 이러한 의미 외에 동일한 신념, 원칙,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종교그룹을 의미한다. 특별히 메노나이트들은 메노나이트 교회라는 말과 메노나이트 공동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고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교회 멤버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메노나이트들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교회”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메노나이트들은 역사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로 존재하던 공동체와 교회의 이해에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했던 강한 연대감이 깨지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메노나이트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이 많이 상실되었다.⁴⁵⁾ 물론 각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차렸기에 적응, 조정,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변화는 메노나이트 사회학자인 카우프만과 드리저가 실시한 「메노나이트 모자이크」⁴⁶⁾라는 회중교회연구(Congregational Studies)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메노나이트들이 취한 입장 중 가장 탁월한 접근방법은 공동체가 어떻게 메노나이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의 방법 중 하나가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가 주장하는 “분별의 공동체 community of discernment”로 살아가는 것이다.⁴⁷⁾ 또한 “제자들의 공동체” 혹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성서가 말하는 신자들의 교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강조하고, 훈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⁴⁸⁾ 이들은 지난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돌봄 그리고 상호부조를 통한 “섬김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또한 “하나님나라의 자치구”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강조해왔다.⁴⁹⁾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점점 더 많은 교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45) *Mennonite Encyclopedia*, Vol. 1, 1995, 5th edition, Herald Press. 657.

46) J. Howard Kauffman and Leo Driedger, *The Mennonite Mosaic Identity and Modernization*, Herald Press, 1991.

47) *Mennonite Encyclopedia*, Vol. V, 1990, Herald Press. 174.

48) 위의 책, 174-175.

49) 위의 책, 175.

이상의 개략적 설명을 종합하자면,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교회의 원형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칼 바르트, 존 하워드 요더, 루크 티모디 존슨, 대천덕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공동체 운동가들이 말했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잃어버린 교회의 원형,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회복함으로써 예수 공동체인 교회로 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인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자.

3.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깊은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다. 공동체라는 이 짧은 단어에는 그저 일상 속에서 쉽게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내포해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모임에서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공동체가 전해주는 성서적 원뜻은 자못 깊고, 의미심장하고, 실천적이다.

이러한 함의와 함께, 이제부터 이 글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학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로 그 초점을 이동해 볼 것이다. 아나뱃티스트는 16세기 교회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그룹이므로 대략 5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긴 역사에 자취를 남긴 그룹들도 적지 않다. 현재 아나뱃티스트 그룹에는 최소한 40-5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룹들은 저마다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구촌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최소한 94개의 서로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⁵⁰⁾ 요즘에는 예전에 없던 ‘사이버공동체’라는 말도 사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가족을 모든 공동체의 기초로 설명한다. 규모나 구성원에서 볼 때 가족을 기초 공동체로 설명한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큰 공동체는 지구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재산공유의 정도로 따져볼 때 후터라이트나 브루더호프를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본다면 재산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마을이나 지구촌 공동체는 또 다른 한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는 94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과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현존하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를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기독교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독교 공동체와 내가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었던 후터라이트, 아미쉬, 브루더호프,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레바플레이스는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기에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런 것도 공동체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를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그린크로프트, 위니펙과 여러 도시에 있는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를 소개할 것이다. 그 외에 한시적인 공동체로서 혹은 특정 목적의 공동체로서 몇몇 예들을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후터라이트

50) Thomas Bender, *Community and Social Change*,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각주 6), 97.

① 후터라이트의 약사

1525년 1월 21일, 츠빙글리 서클에서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작된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스위스 형제단으로 알려져 있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조지 브라우락이 이끄는 이 그룹은 스위스 취리히 관할의 노이슈타트가세에 있는 펠릭스 만츠의 집에 비밀리에 모여 16세기 당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최초의 성인세례이자 신자들의 세례를 베풀었다.⁵¹⁾ 이 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중 후터라이트는 박해가 한창인 16세기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던 모라비아를 배경으로 시작된 아나뱃티스트 그룹이다. 아나뱃티스트들이 모라비아 지역으로 모이게 된 배경에 대해 후터라이트 역사가인 존 호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재세례신자들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었다. 1525년 10월, 그레벨과 블라우락, 그리고 만츠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이후, 어떤 사람이 잠긴 창문을 통해 밧줄을 내려주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레벨은 스위스 남쪽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흑사병에 걸려 앓다가 죽었다. 1526년 3월 1일에는 취리히의 모든 재세례신자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

1526년 가을, 펠릭스 만츠가 체포되었고 취리히 시를 흐르는 리마트 강 (Rimmat River)에 수장되었다. 배에 실린 만츠의 손은 묶여져 그의 무릎 위에 놓였고, 그의 무릎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가로질러 손과 무릎을 함께 묶었다. 이는 그를 물속에 집어넣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다. 만츠는 최초의 아나뱃티스트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박해 때문에, 재세례신자들은 스위스를 떠나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피신하게 되었다.

블라우락은 스위스에서 당시 티롤(Tirol)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로 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비밀리에 설교를 하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준비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1529년 8월, 그는 크라우센(Clausen) 근처의 구피다운(Gufidaun)에서 체포되었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후 화형에 처해졌다. 피터 왈포트(Peter Walpot)라고 알려진 여덟 살 된 소년이 그의 처형 장면을 목격하였다. 오랜 후에, 피터는 모라비아 후터라이트 형제단의 장로가 되었다. 재세례신자들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교회를 국가와 분리시켰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⁵²⁾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시작한 세 사람의 위대한 리더들, 즉 그레벨, 만츠, 그리고 블라우락이 죽고 없었지만 재세례신앙운동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들의 리더십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의해 이어졌다.

재세례신앙운동은 오스트리아와 남부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티롤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세례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토이퍼자거(Täuferjäger)”라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재세례신자들을 수색하여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박해가 너무 가혹

51) 윌리엄 에스텝,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출판사) 34-35. Walter Klaassen,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뱃티즘」, 김복기 역 (춘천: KAP) 31.

52) 존 호퍼,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김복기 역, (춘천: KAP, 2008), 71-73.

하게 진행되자, 재세례신자들은 티롤을 떠나 모라비아(Moravia, 체코슬로바키아 지역)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리흐텐슈타인(Lords von Liechtenstein)영주들, 특히 레온하르트(Leonhard)는 재세례신자들을 보호해 주었다. 모진 박해 속에서 이러한 “약속의 땅(Promised Land)”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끊임없는 재세례신자들이 티롤,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을 떠나 니콜스버그(Nikolsburg) 주변의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1527년 그곳에는 약 12,000명의 재세례신자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⁵³⁾

이렇게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위한 역사적 배경이 펼쳐졌다. 특별히 초창기 이들에게 가해진 박해에 대처하기 위해 아나뱃티스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크리스천들은 무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그룹과, 방어를 위해서는 검을 소유해도 괜찮다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후브마이어를 따르는 사람들은 검을 소유하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슈버틀러’(Schwertler 검을 소지한 사람들)라 불렸고, 제이콥 위드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성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스태블러’(Stäbler; 지팡이를 소지한 사람들)라고 불렸다. 이 두 그룹 중 슈버틀러 그룹은 죽임을 당해 사라지고, 스태블러들은 그 어떤 무력에 의한 보호 없이 그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귀족을 찾아 여러 지역을 떠돌아 다녔다.

그 당시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아예 그냥 버리고 니콜스버그를 떠난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마을에 천막을 쳤다. 그들 중에 청지기를 임명하고 사람들 앞에 외투를 펼쳐 놓았다.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외투 위에 내려놓았다.

1528년에 일어난 이 일은 모라비아 재세례신자들 간에 완전 공동의 재산이라는 엄청난 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당시 오스터리츠(Austerlitz) 마을의 북쪽으로 피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 종략 -

티롤의 부스터탈 계곡(Buster Tal Valley)에 있는 부르넥(Brunneck) 근처의 무스(Moos)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제이콥 후터(Jakob Hutter)는 1529년에 오스터리츠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후터는 모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스피탈(Spittal)에서 재세례신자가 되었고, 후에 조지 블라우락의 뒤를 이어 티롤지방의 재세례신자들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제이콥 위드만으로부터 모라비아가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던 후터와 그를 돕는 시몬 쉬츠저(Simon Schützinger)는 만약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같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위드만 그룹을 방문하였다. 위드만 회중(congregation)의 생활 방식은 후터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티롤 지역에 있는 자신의 무리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회중에 합류하였다. 약 480km나 떨어져 있는 티롤로 돌아오는 여행에서 그는 모라비아로 보내기 위한 아주 작은 피난민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주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은 “뿔커(Völker)”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했다.⁵⁴⁾

이러한 배경에서 유무상통을 실천한 그룹이 후터라이트 공동체이다. 비록 제이콥 후터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후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화형에 처해졌지만, 이 유무상통의 그룹은

53) 존 호퍼, 위의 책, 74.

54) 존 호퍼, 위의 책, 78-80.

그의 이름을 따서 후터라이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도 잠깐, 모라비아 지역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1618-1648)의 피해와 흑사병으로 후터라이트는 슬로바키아(헝가리)로 피난해야 했다. 그러나 이곳도 전쟁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아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특별히 가톨릭 정부에 의한 박해와 예수회에 의한 회유 정책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후터라이트들의 문서들을 약탈하기 위한 공격 외에, 온갖 종류의 박해가 시행되었다. 어린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가고, 모임 장소를 봉쇄해버리고, 가톨릭 예배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모습이 그 예들이다. 형제들이 있는 곳에는 감시인이 항상 따라붙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남은 사람들은 숲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 그 결과 컬러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만이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숨어 지내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두 잡혔다. 이렇게 남아있던 후터라이트들의 저항은 매질과 고문으로 인해 서서히 사라져갔고 한 사람 한 사람 가톨릭 사상을 주입 (indoctrination)시킴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763년, 실제 헝가리에 남겨진 모든 후터라이트들은 모두 가톨릭이 되었다.

1781년, 후터라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고문을 폐지한다는 의미로 관용의 조서 (the Edict of Toleration)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그 당시 헝가리 후터라이트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⁵⁵⁾

그나마 헝가리를 떠난 사람들은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에 살게 되었고, 다시 발라치아로, 북러시아로 이주해야 했다. 결국 1830년대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메노나이트들이 살고 있던 몰로치나 지구에 정착하였다가 1870년대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미국의 다코타 주에 정착하여 살던 후터라이트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1918년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터라이트 역사는 1529년에 재산공유의 공동체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왔다. 오랜 기간의 박해가 끝난 20세기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보기 드문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⁵⁶⁾ 한참 뒤의 역사이지만, 1920년대 독일에서 또 다른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 생겨났는데, 이 그룹은 브루더호프로 알려져 있다.

대개 후터라이트 내에는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로이트(The Leut)는 북미에서 후터라이트 전통에 속해 있는 3개의 그룹을 의미한다. 북미에 존재하는 세 그룹은 슈미트로이트(Schmiedeleut), 다리우스로이트(Dariusleut) 그리고 레러로이트(Lehrerleut)이다. 로이트(Leut)는 독일어로 “사람”을 뜻하며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전통과 지리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혹자는 브루더호프를 후터라이트와 연계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독립된 공동체로 존재한다. 브루더호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② 후터라이트의 삶⁵⁷⁾

55) 존 호퍼, 위의 책, 128.

56) John Hostetler,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김복기 역 (춘천: KAP, 2007), 31.

57) 이곳에 소개된 ②~④의 내용은 <http://www.hutterites.org/> 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마니토바 주, Decker Colony의 Mark Waldner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였다.

후터라이트는 자치구(colony)⁵⁸⁾ 단위로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이다. 자치구는 여러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식사하고, 일하며, 생활한다. 보통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중앙에 공동 시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의 식사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한다. 요리를 위한 주방, 세탁소, 냉장고 및 냉동고, 식료품을 위한 작업실, 냉동 및 냉장창고, 그리고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 가까운 곳에 필요한 집들과 학교가 위치해 있고, 공동의 작업장, 차고, 필요한 축사 등이 배열해 있다. 이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며 100% 재산을 공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16세기 근원적 종교개혁운동에서 발원한 믿음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후터라이트는 메노나이트(그리고 메노나이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쉬)와 함께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1527년 마이클 잛틀러에 의해 입안된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를 공유한다.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세례, 권징, 주의 만찬, 국가와 교회의 분리, 목자, 검의 사용 금지, 맹세 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16세기에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최초로 신자들의 세례, 성인세례를 주장한 사람들로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는 성인이 되어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rebaptizer)”이라는 뜻이다.

후터라이트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재산공유의 공동체(community of goods)를 실천하는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였고(요12), 공동의 지갑을 소유하였다고 믿고 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설명하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과 서로 돌봄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재물을 공유했던 것처럼(행2: 44-47, 행4:32-35) 사랑을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자치구에 거주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제공된다. 그러기에 후터라이트는 개인 은행구좌를 갖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며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된다. 후터라이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후터라이트들은 매일 약 30분 정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매주 일요일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 1년 중 크리스마스, 부활절, 주현절, 승천일, 오순절을 기념하며, 그 외에 공동체 구성원의 세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기뻐하고 장례식을 기린다.

③ 공동의 재산(Community of Goods)

후터라이트들은 공동체로 산다. 이 말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며 산다는 말이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치구(colony)에 거주한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일하며 임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체가 공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일하고 섬김으로써 모든 필요를 채운다. 감자를 캔다든지, 딸기를 따다든지, 채소를 가꾸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며, 농기류 수선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에는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전문 담당자가 선정되어 있다.

58) 자치구(colony)는 한 공동체가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을 일컫는다. 이 땅 위의 하나님나라 자치구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지칭할 때, 자치구라는 말을 사용한다. - 글쓴이 주

유무상통의 사상은 성서에 기초하였으며 특별히 사도행전 2:44-47절과 4:32-35절에 근거한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2:44-47, 새번역)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4:34-35, 새번역)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예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공동으로” 사셨다. 이러한 모든 예들을 통해 후터라이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종종 후터라이트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재산을 공유하는가 질문하곤 한다. 후터라이트가 물질 나눔의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칫솔까지 함께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 후터라이트들이 공동체로 살지만, 공동체가 부여하는 자기 소유물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체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집과 집 안의 물건들은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여러 건물들, 차고, 헛간, 창고, 자동차 및 각종 기계류, 농기구와 일은 실패와 성공까지 모든 공동체가 공유한다.

④ 교회 예배

위에서 잠깐 설명하였지만, 대부분의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매일 오후에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이는 주로 공동의 말씀묵상 시간이 된다.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믿으며, 매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게베트(Gebet)라고 알려진 오후 예배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며, 대개 저녁 식사 전에 드린다. 일요일 예배와 기타 교회력에 의한 기념예배들은 오전에 드린다. 아침예배는 75분 가량 소요된다.

모든 예배는 노래로 시작한다. 대부분의 후터라이트 목사들이 회중을 위해 찬송가 가사를 들려주지만 슈미트로이트와 같은 그룹에서는 미리 가사를 들려주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 노래 가사를 미리 읽어주는 것은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찬송가책을 다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실행했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레르(Lehr)는 일요일 아침 예배를 지칭하는 말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레르는 일요일 아침과 교회력의 기념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로 찬송과 함께 시작된다. 찬송에 이어 보레트(Vorred)라는 이름의 첫 번 가르침이 간략하게 주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과 같은 주제별 묵상에 해당된다. 주제별 묵상인 보레트가 주어진 후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 후에 본격적인 설교를 통한 가르침(lehr)이 선포된다. 이 설교는 주로 성경말씀 읽기로 시작되고 이 본문에 맞게 주해한다. 맨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후터라이트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킨다. 이 절기에는 아침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오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승천일과 마리아의 수태고지일을 지키기도 한다.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특별 예배로 진행한다. 그 외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

이처럼 후터라이트들에게 믿음은 그들의 매일 생활의 많은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복음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숙고한 후에 진행한다.

⑤ 구혼

젊은 후터라이트 남성과 여성들은 다른 후터라이트 자치구들에 속한 청년들과 충분히 교제할 기회를 갖는다. 다른 자치구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몇 주간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들은 젊은 남녀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개 후터라이트들은 배우자를 다른 자치구에서 찾지만 결혼은 거의 항상 같은 로이트(leut) 그룹 안에서 한다. 후터라이트를 떠나 구혼하거나 데이트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후터라이트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가 순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 남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관계에 있어 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후터라이트 교회에 구성원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다. 물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의미한다. 한 쌍이 결혼할 때, 여성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를 떠나 남편의 자치구에서 살아야 한다. 후터라이트들은 이혼을 하지 않으며 결혼은 부부가 평생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⑥ 세례

세례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이다. 세례는 후터라이트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며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믿음을 변치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는 예식이다.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일은 매우 진지하고 중대하게 여겨진다.

후터라이트들은 전형적으로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세례를 받을 것인지 묻는다. 세례는 학교, 주일학교, 교회에서 대략 5년에서 10년 동안 종교적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식 전에 아주 오랜 시간을 갖고 자신이 거듭난 삶, 믿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세례를 통해 후터라이트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 속에 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진지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 원할 때 세례를 베푼다.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목사를 만나 세례를 받겠다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목사는 이 요청을 전체 회중에 알리고, 만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기 전 일정한 보호관찰기간을 갖는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후보자는 대략 6, 7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동안 영적, 종교적 가르침을 주고 자신의 삶을 보증해 줄 형제들을 방문한다.

후터라이트들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조항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세례후보자들은 세례식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한다. 일단 공동체 앞에서 언약을 세움으로써 세례

를 받으면, 모든 멤버들이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을 완전한 후터라이트 교회의 멤버라고 여긴다. 이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 더 큰 공동체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며 그들은 자신보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⑦ 결혼

후터라이트들은 결혼식을 매우 기쁜 행사로 여기며 대개 2주간 기념한다. 결혼은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방문하는 행복한 축제의 기간이다. 신랑은 결혼식 순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자치구의 장로들로부터 허락과 지도를 받은 후, 그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전통적으로 신랑은 대개 결혼식 한 주 혹은 두 주 전에, 아우프레드 훌바(Aufred Hulba)라고 알려진 관례를 치른다. 이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자치구를 방문하는 전통이다. 결혼 전 주 일요일 오후나 저녁에 신랑 측의 장로들, 친구들, 친척 및 동생들을 대동하여 신부의 집에 모여 신부와의 결혼에 동의해 줄 것을 신부측 가족과 공동체에 요청한다. 이 시간에 장로, 친구, 친척들로부터 조언과 충고와 축복의 말을 들으며, 결혼 승낙과 더불어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된다.

훌바가 이루어지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한바탕 행복한 잔치를 연다. 이때 한편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목사들과 특별한 손님들이 앉고 예비부부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한 가운데 앉도록 초대된다. 이때 청년들의 합창부터 다양한 소그룹의 노래, 어린이 그룹 및 회중이 부르는 전통 음악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부른다.

결혼식은 대개 신랑이 속한 자치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신부가 속한 자치구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신부 측의 자치구 멤버들에게는 이 시간이 신부와 보내는 마지막 잔치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은 한밤중에까지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 예비부부는 아우프레드 훌바가 열린 다음 주 중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양가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대개 결혼사진도 이 기간에 찍는다.

결혼식 전 토요일에 신부는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예비부부는 신랑의 자치구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자동차 행렬을 이루며 호송된다. 이들의 자동차 행렬이 신랑측의 자치구에 도착하면 즐거운 행사가 시작된다. 형형색색의 풍선을 매단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당황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신랑의 자치구에 들어선다. 신부와 하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 아주 짧은 교회 예식 후에, 축제의 만찬과 이전 일요일에 축하했던 것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실제 결혼식은 주일 오전, 결혼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의 긴 설교와 더불어 진행되며, 부부는 전체 회중 앞에서 결혼 서약을 교환한 뒤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결혼식에 이어 전통적인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정성 들여 만든 식탁보와 여러 가지 장식 위에 음식이 차려진다.

대략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후츠허차이트(Huchzeit)라는 또 다른 모임이 진행된다. 이 모임은 대개 전날 저녁에 있었던 활동과 오락시간의 연장으로 노래, 시낭송, 행사를 위해 준비된 여러 파워포인트가 이어진다. 스낵과 디저트가 제공되는 아주 즐거운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후터라이트들에게 결혼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혼은 두 사람

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임을 제대로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한 부부의 순결한 삶이 요구된다.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둡게 해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된다. 또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자는 결혼을 대표해야만 한다(창세기 2:20-24). 그러나 독재자나 통치자로서 군림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듯이 주님께로 그의 아내를 인도할 책임의식을 갖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에베소서 5:20-25). 마찬가지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부름을 받았다(잠언 31:10-31). 사랑, 존중, 존경은 한 몸을 이룬 두 부부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사항은 아니라고 믿는다(마태복음 19:4-6).

⑧ 일상의 삶과 교육

후터라이트들의 일상은 여가시간과 교육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와 로이트 그룹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대부분의 자치구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각 자치구는 목사, 매니저, 농장매니저와 같은 리더들이 이끌어 간다. 대부분의 후터라이트들은 농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자치구들이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다.

여가시간은 로이트마다 차이가 많으며, 어떤 후터라이트 공동체들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에 관대한 반면 어떤 공동체들은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엄격히 금지한다.

후터라이트 자녀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은 2세경, 유아원(클라나슈엘 Klanaschuel)에서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유치원은 나이 많은 후터라이트 여성들이 담당하며 일정한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는다. 유치원은 대개 주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대략 5세경부터 시작한다.

배관공, 전기공, 목수 및 교사가 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추세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자치구만이 12학년까지 교육을 시켰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12학년까지 교육을 시킨다. 실제로 슈미트로이트와 다리우스로이트는 현재 12학년에 졸업식을 거행한다. 대략 2/3에 해당하는 슈미트로이트 자치구들이 최소한 12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한다.

⑨ 공동체의 삶

한 자치구에는 대략 50명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산다.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80명이며, 대략 14가정이 삶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각 자치구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야만 한다.

거의 모든 후터라이트들은 농장을 경영한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에 따라 3,000에서 12,000에이커 (360만 평~1,470만 평)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경영한다.

후터라이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주의 10, 20, 30%에 달하는 돼지, 계란, 칠면조를 생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른다.

농업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자치구들이 제조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제조업이 다양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작물을 생산하는데 적은 노동력에 맞는 현대의 기술과학 및 대형 기계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더 많은 자치구들이 그들의 수입을 보충해줄 만한 새로운 수단으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추세이다.

⑩ 여가활동

전통적으로 후터라이트들은 여가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실제로 특정한 스포츠와 여가활동은 권장사항이 아니며, 때로는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러나 여가시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교회 리더들에 따라 여가시간에 자유를 주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하키를 즐기고 있으며, 다른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목각 공예, 잡지나 책 읽기, 작곡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후터라이트들이 즐기는 스포츠 관련 활동으로는 하키, 배구, 야구, 축구, 풋볼, 라크로스 등이다. 모든 자치구가 이러한 스포츠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자치구들이 스포츠를 허락하고 있다. 후터라이트들은 조직된 스포츠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후터라이트 젊은이들은 서로를 알기 위해 주중 혹은 주말에 다른 자치구를 방문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서로 어울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서로 돕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후터라이트 젊은이들은 건물을 짓는 일이 생기면 함께 모여 일을 한다. 여름 채소 수확기에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이 계획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없어도 다른 자치구를 방문하는 일은 늘 일어난다. 화단정리, 뜨개질, 십자수, 바느질, 목각, 양탄자 만들기 등은 후터라이트 여성들이 즐기는 활동들이다.

후터라이트들은 노래를 즐긴다. 예배 중의 제창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합창단을 조직하여 자선공연을 열기도 하며, 병원과 여러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열기도 한다. 때때로 후터라이트들은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저녁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대다수의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악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보다 덜 보수적인 후터라이트들은 악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실제로는 악기를 배우기 위해 레슨을 받기도 한다. 로이트나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젊은이들은 스포츠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많은 기회를 갖는다.

⑪ 음악

전통적으로 후터라이트들은 음악과 노래가 신앙, 역사,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겨왔다. 역사적으로 한스 라이퍼(Hans Reifer), 피터 리데만(Peter Riedemann), 폴 글락(Paul Glock), 볼프 자일러(Wolf Sailer)와 같은 많은 이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성경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수백 곡을 썼다. 이러한 곡들은 현존하는 독일 노래들로 바테르리데르(Väterlieder)라는 노래집으로 출판되어 현재 예배 중에 부르고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노래들은 아카펠라로 부른다.

전통적인 노래들 외에도, 후터라이트들은 많은 유형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합창단을 만들어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합창단들은 15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남녀로 조직되어 결혼식, 기독교 기념일, 혹은 특별한 행사의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니토바 주 서부지역 후터라이트 청소년 합창단’은 1999년 일곱 개의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이 합창단은 노래연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이 합창단 외에 마니토바 주 동부 지역에도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창단 외에 후터라이트들은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그룹으로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 비록 대부분의 공동체가 악기 사용을 금하지만, 열정적인 음악가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악기들을 소유하여 음악을 즐기기도 한다. 몇몇 후터라이트 리더들은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노래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⑫ 아이에서 어른까지

15세는 후터라이트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로 여겨진다. 15세 생일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날로 여겨진다. 15세 소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15세 소년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이들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선 아이들의 식당에서 어른들의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어른 대접을 받는다. 또한 나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청된다.

15세 생일에 그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을 산다. 여전히 예전부터 해오던 집안의 일들을 돕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 후터라이트 자치구에서 5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 어린이 전용 식당에서 아이들만 따로 모여 식사를 하게 된다. 저녁 식사 시간에 15세가 되는 소녀와 소년은 독일어 선생님에게 자신이 15세가 되었음을 알리고, 독일어 선생님은 그들에게 훈계와 더불어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그들은 아침과 밤 시간에 혼자 기도해야 한다. 독일어 선생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어른이 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조언과 더불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훈계와 더불어, 생일을 맞은 소녀, 소년은 성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른 식당으로 이동하면, 식당의 남자들이 앉도록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앉아야 한다. 대개 나이가 들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젊은 남성들은 공동체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신 앞에 앉도록 자리를 배열한다. 가장 최근에 15세가 된 아이가 가장 연장자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5세가 되면 소년소녀들은 서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를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소년과 소녀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일단 15세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기회는 점점 많아지는데 특별히 슈미트로이트 공동체는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공식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 특별히 공동체의 어딘가에서 모든 소년들은 견습생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부여받아 일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전형적으로 그들은 다음 일이 주어질 때까지 대략 1년 동안 주어진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만약 그들이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면, 방과 후에 주어진 일을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

15세는 후터라이트 소년소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비록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 공동체 내 세례를 받은 성인 멤버들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권면한다. 주일학교와 교회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한다. 이런 식으로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자유를 주되 결코 죄에 빠지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기간은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시기이다.

후터라이트 공동체 내의 모든 부모들은 언젠가 자녀들이 후터라이트 교회에 참가함으로써 신자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⑬ 후터라이트 그룹들

후터라이트 내에는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로이트(The Leut)는 북미에서 후터라이트 전통에 속해 있는 3개의 그룹을 의미한다.

슈미트로이트(Schmiedeleut)는 리더 마이클 발트너(Michael Waldner)가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다리우스로이트(Dariusleut)는 리더 다리우스 발트너(Darius Walter)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고, 레러로이트(Lehrerleut)는 리더였던 이가 교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러로이트와 다리우스로이트는 북미의 북서부에 위치해있고, 캐나다의 사스카추원주, 알버타주,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는 몬태나주,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 분포한다.

한편 슈미트로이트는 북미의 중부에 위치해있고,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와 미국의 북부 다코타주, 남부다코타주와 미네소타 주에 분포한다.

이들은 모두 검소한 옷차림을 하지만 의상의 형태는 그룹마다 독특하다. 보수성을 따지자면 레러로이트가 가장 보수적이며 그다음으로 다리우스로이트, 슈미트로이트 순서이다.

이 세 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다가 대략 1874년에서 1879년경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이주할 때 서로 다른 리더의 인도아래 다코타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장로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 로이트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주 당시 1,200명의 후터라이트들이 북미에 도착하였는데, 1/3이 현재 남부다코타주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북미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은 이전 회중의 형태를 고수하였다. 나머지 후터라이트들 중 2/3는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법에 의해 각자 농지를 소유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들을 프래리로이트(Prarieleut)라고 불린다. 통상적으로 이들에게는 1862년에 제정된 농가법(Homestead Act)이 적용되었고, 160에이커의 논지가 주어졌다. 이들은 남부다코타주에 흩어져 살았다.

㉔ 후터라이트 현황

순례의 여정 끝에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한 후터라이트는 이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 이들이 누린 성장과 번영은 모라비아에서 누렸던 황금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후터라이트 인구는 1980년에 24,326명, 1996년에 37,000명, 2004년에 39,340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알버타주(168), 마니토바주(107), 사스카추원주(60), 남부 다코타주(54)에 위치해 있다. 세 개의 로이트를 모두 합쳐 462개의 자치구에 총 45,000명의 후터라이트들이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⁵⁹⁾ 75%의 후터라이트가 캐나다에, 나머지 25%가 미국에 분포해 있다.

2) 아미쉬

아미쉬 메노나이트(The Amish Mennonite) 혹은 아미쉬(The Amish) 로 알려진 사람들은 1693년 유럽의 스위스 형제단 (Swiss Brethren)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룹이다. 한 세대 전까지 아미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은 ‘늘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도시 한 복판에서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옷차림과 특이한 문화와 턱수염 등 외형적인 복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던 그룹이 2006년 10월 2일 니켈 마인즈 총기사건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59) <http://www.hutterites.org/history/ww1-beyond/> 에 있는 후터라이트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임. 후터라이트 공동체에 관련된 책은 현재 5권이 번역되어 있다. - 글쓴이 주

했다. 아미쉬의 용서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찬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했다.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물질 문명을 거부한다는 그들이 '산상수훈과 주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아미쉬들의 수자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단순히 용서와 특이한 복장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방식과 생태적인 삶의 모습, 자연에 대한 그들의 철학, 학력에 비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놀라움, 종교와 상관없이 매력을 발산하는 그들의 단순한 삶의 모습, 아미쉬 쿨트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때, 그들은 전화, 자동차, 전기사용 거부 등으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문명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아미쉬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연구를 진행한 거트루드 앤더스 헌팅턴이라는 인류학자도 그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⁶⁰⁾ 그러나 그들이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커녕 매 20년마다 두 배로 인구가 증가하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결국은 점점 더 많은 아미쉬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이 글은 이전 아미쉬에 관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 호스테틀러의 연구 「아미쉬 사회」와 사회인류학자로서 아미쉬와 관계를 맺은 블래드 이고우의 「아미쉬 공동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최근에 보고된 도널드 크레이빌의 책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The Amish」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⁶¹⁾

① 아미쉬 역사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교회의 규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분열을 경험하였다. 교제하고 있는 멤버의 죄를 징계하고 권징을 요하는 1632년의(네덜란드) 도드레흐트 신앙고백서 (Dordrecht Confession)의 조항을 통해 교회의 규율을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이 아미쉬 그룹으로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죄를 범한 멤버는 교제그룹으로부터 추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든 또는 다른 사회적 관계가 되었든...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만나면 안되고 여러 금지 조항이 주어지게 되었다.”⁶²⁾

60) Donald B. Kraybill et al.,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정성국 옮김 (서울: CLC, 2018), 19.

61) 존 호스테틀러는 원래 아미쉬와 후터라이트를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신이 아미쉬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적 공동체에서 추방을 경험하기도 했다. 후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사회학자가 되었다. 메노나이트를 미국 교회사에 알린 헤롤드 벤더와 더불어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의 책 「아미쉬 사회」는 1963년 출간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1968년, 1980년, 1997년에 개정판이 소개되었다. 블래드 이고우의 「아미쉬 공동체」는 아미쉬들이 발행하는 여러 정기간행물 중 Family Life에 기고한 글을 스크랩하면서 기획한 책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일머에 위치한 아미쉬 출판사 Pathway는 캐나다와 미국의 아미쉬들이 읽는 Family Life, Blackboard Bulletin, Young Companion을 발행한다. Family Life는 각종 기사, 시, 아미쉬 레시피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월간지이다. Blackboard Bulletin은 아미쉬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이며, Young Companion은 어린이들과 십대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이다. 블래드 이고는 25년 동안 아미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쓴 편지, 기사, 역사적 교훈, 비유, 질문, 도전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으며, 이들의 출교, 징계, 무저항, 의상, 청년들의 활동, 주류세상과의 갈등, 일, 교회, 유머, 삶의 교훈 등 아미쉬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기록하였다. 임세근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은 한국 이민자라는 외부인의 눈으로 본 아미쉬에 대한 글이다. 아미쉬 관련 책은 한국에 10여 권 이상 출간되어 있다.

62) Christopher J. Dyck, 「아나뱃티스트 역사」,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2), 339.

도드레흐트 신앙고백서가 스위스 형제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의 안내서로서 그들은 이 고백서를 종종 언급하였다. 스위스 형제단이 메노 시몬스를 포함한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과 함께 토론을 벌인 것이 바로 규율에 대한 주제였고 이에 대한 중용을 촉구한 것도 이들이었다. 그러나 17세기 말 제이콥 암만(Jacob Ammann)이라는 스위스 형제단의 젊은 장로 한 사람이 특히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한 여성을 징계하지 않고 대충 넘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 및 알사스 지역 회중 교회의 규율이 상당히 애매하게 흘러감을 매우 염려하였다. 스위스 형제단의 교리에 대하여 상당히 동정적이면서도 이 그룹에 합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규율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연히 암만은 자기의 집 근처의 도시인 베른(Bern), 스위스로부터 좀 더 먼 스위스의 여러 도시와 독일, 알사스 지역을 방문하여 자신의 염려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그는 나이 많은 장로였던 한스 리스트(Hans Reist)가 그 여인을 훈계하지 않고 지나친 관용을 베풀며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리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율들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암만의 열정을 너무 과소평가하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한편 암만의 걱정은 다른 이슈들과 더불어 점점 더 증폭되었다. 비록 스위스 메노나이트들은 세족식을 시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드레흐트 고백의 여섯 번째 조항은 이를 시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암만 또한 이를 받아들여 세족식을 시행하였다. 그는 교제와 옷 입을 것에 세속적인 모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단순성과 일치를 요구하였다. 남자들은 수염을 다듬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랑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되었다. 암만은 성찬식을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693년 여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실제적인 분열이 시작되었다.

결국 암만은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리스트(Reist)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 그리고 멤버들 중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방하였다. 그는 알사스 지역에서 대단한 지지를 얻었다. 북부 독일 지역의 메노나이트들이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은 없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암만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빨랐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자신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1693년의 분열은 1697년에 끝이 보이는 듯 했다. 암만이 교리를 회복함으로 추구하려던 개혁의 길은 무시되었으나, 거기에는 이러한 문제 뿐이 아닌 인격의 충돌과 교회권력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보수적인 신학적 논쟁의 끝은 종종 분파주의적 분열로 귀착이 되었다.

북미 이주에 대한 아미쉬의 초기 기록은 1727년으로 나타나있지만, 제이콥 허츨러(Jacob Hertzler, 1786년 사망)가 펜실베이니아의 벅스 카운티에 온 해인 1749년까지는 이렇다할 회중이 조직되지 못하였다. 이 후에 랑커스터, 체스터 지역에 많은 회중이 생겨났다. 이 무렵 많은 아미쉬들이 독일의 헤세(Hesse)를 포함한 유럽에서 직접 이 지역으로 이주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다시 오하이오와 인디애나로 이주의 행렬을 계속 이어나갔다. 1812년 오하이오 주의 홈스(Holms) 카운티에 대단위의 정착이 이루어졌고, 1840년대에는 인디애나의 라그레인지 (Lagrange) 와

다른 지역에도 정착이 이루어졌다. 일리노이, 오리곤, 캔자스주를 향한 서부로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및 다른 주로도 이주가 이루어졌다. 20세기에 가장 큰 정착이 이루어진 곳은 랑캐스터, 홈스, 라그레인지 카운티로의 이주였다.⁶³⁾

아미쉬는 새로운 땅과 주변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시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다. 1850~1880년까지 복장과 관련하여 분열이 일어나 *올드 오더 아미쉬(Old Order Amish)*와 진보적 그룹인 아미쉬 메노나이트(Amish Mennonites)로 나뉘었다. “1900년에 6,00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의 인구는 275,000명이 되어 미국 30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걸쳐 살고 있다.”⁶⁴⁾

② 아미쉬의 삶

아미쉬들은 믿음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저항(resistance), 수용(acceptance) 그리고 협상(negoti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항이란 이를테면 검소한 옷, 마차를 이용한 교통수단, 종교의식,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펜실베이니아 더치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들은 고등학교 교육, 공공전력망, 인터넷, 텔레비전을 거부했다. 20세기 중반에 교육개혁에 대한 이들의 도전, 그리고 최근에 있던 건축물 법규에 대한 도전은 비싼 비용은 물론 투옥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⁶⁵⁾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현대의 모든 것을 무조건 거부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문화는 화석화된 하위문화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들은 문화적 울타리를 가로질러, 세제, 살충제, 고정밀 방앗간 기계,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현대 생활의 장점을 수용했다. 그들은 바깥 세계로부터 혁신을 채택함으로써 생활하였고 농장과 상점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들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과세(수입, 판매 및 부동산 세금)를 받아들이고, 식품 생산과 그들 사업체에서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정부지침을 수용했다. 텔레비전과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들은 거절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애매한 것은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모호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면서, 어떤 주제들의 관점은 거부하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와 협상하였다. 가령 자동차는 타지만 소유하지 않고, 전기를 공동서비스가 아닌 배터리에서 뽑아 쓰고, 소매상이나 간단한 제조업에서 일은 하지만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협상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번성은 뒤로 물리지 않았다.⁶⁶⁾

이러한 모든 세세한 내용은 아미쉬들에게 분별의 대상이다. 그들의 선택 사항은 항상 개인보다 공동체의 건강성과 안녕을 우선한다. 곧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택은 하지 않거나 모호한 것은 유보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 아미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10가지 행동 양식이 있다.⁶⁷⁾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는 오르드눔(Ordnung) 즉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규제되었다.

63) Christopher J. Dyck, 「아나뱃티스트 역사」,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2), 341.

64) Donald B. Kraybill et al.,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정성국 옮김 (서울: CLC, 2018) 36-37.

65) Donald B. Kraybill et al., 위의 책 44. 2013년 통계임.

66) 위의 책, 44-45.

67) 위의 책, 52.

- 농촌거주: 모든 아미쉬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까운 여행을 위해서는 마차를 이용한다.⁶⁸⁾
- 독일 방언 사용: 예배는 대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몇 사람의 설교자들이 노트나 대본 없이 설교를 한다.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독일어” (Pennsylvania “Dutch”)를 사용하며 종종 여기 저기 영어가 튀어나오기도 하며, *슈리프트 도이치* (*Schrift-deutsch*)라고 부르는 성경 독일어를 사용한다.⁶⁹⁾
- 8학년 교육: 아미쉬 부모들은 종교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공동체가 운영하는 8학년까지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록 8학년까지이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⁷⁰⁾
- 가정교회예배: 아미쉬 공동체들은 집에서 모임을 갖는데, 아주 큰 집의 넓은 방이나, 헛간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가족들이 차례로 그룹들을 초청한다. 각 구역은 한 명의 감독 (bishop), 두 명의 목사 (ministers), 그리고 한 명의 집사 (deacon)들이 관장한다.⁷¹⁾
- 소규모 지역회중: 회중 혹은 구역들은 대개 40에서 50가정으로 구성되며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나누기 시작한다.⁷²⁾ 교리적으로 교회는 참회, 회개, 피의 속죄, 새로운 탄생, 신자의 세례, 믿음으로 의롭게 됨, 실제적인 제자도, 그리고 지속적인 성화를 강조한다. 반드시 시행해야 할 여덟 가지 교회 의식은 세례, 성찬, 세족, 여성들의 베일, 거룩한 입맞춤, 기름 바름, 안수, 그리고 결혼이다.⁷³⁾
- 평신도 목회자: 그들의 예배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평신도 목사에 의해 진행된다. 모든 아미쉬 회중은 1632년 성문화된 도르트레흐트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16세기에 쓰인 아카펠라 찬송을 부른다.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아미쉬들은 독특한 옷을 입는다. 찬양과 교회 의자를 제외하면 아미쉬 교회 교구들은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없으며 현대적인 제도적 삶과 주류 종교를 상징하는 관료주의의 흔적이 부족하다. 아미쉬 지역사무실, 총회, 협의체,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와 간소화된 통일성을 부여하는 성문화된 헌법조차도 없다.⁷⁴⁾
- 교회에 의해 규정된 복장: 갈고리 단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재단사였던 제이콥 암만 시대부터 논의했던 내용이다. 핵심은 국가가 아닌 교회가 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⁷⁵⁾
- 기술의 선택적 사용: 아미쉬들은 최신 형태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20세기 초반에 농촌 전기시설, 전화, 협동조합 및 농업 기계화가 보편화되고 있을 때, 이들은 공공설비와 자동차를 거절했다. 트랙터 사용을 거부했고, 소규모 농업을 고수했다.⁷⁶⁾
- 말과 마차 운송수단: 말과 마차를 타는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특이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68) 위의 책, 53.

69) Christopher J. Dyck, 「아나뱃티스트 역사」, 344.

70) Donald B. Kraybill et al., 위의 책, 52-53.

71) Christopher J. Dyck, 「아나뱃티스트 역사」, 344.

72) Christopher J. Dyck, 위의 책, 344.

73) Christopher J. Dyck, 위의 책, 347.

74) Donald B. Kraybill et al.,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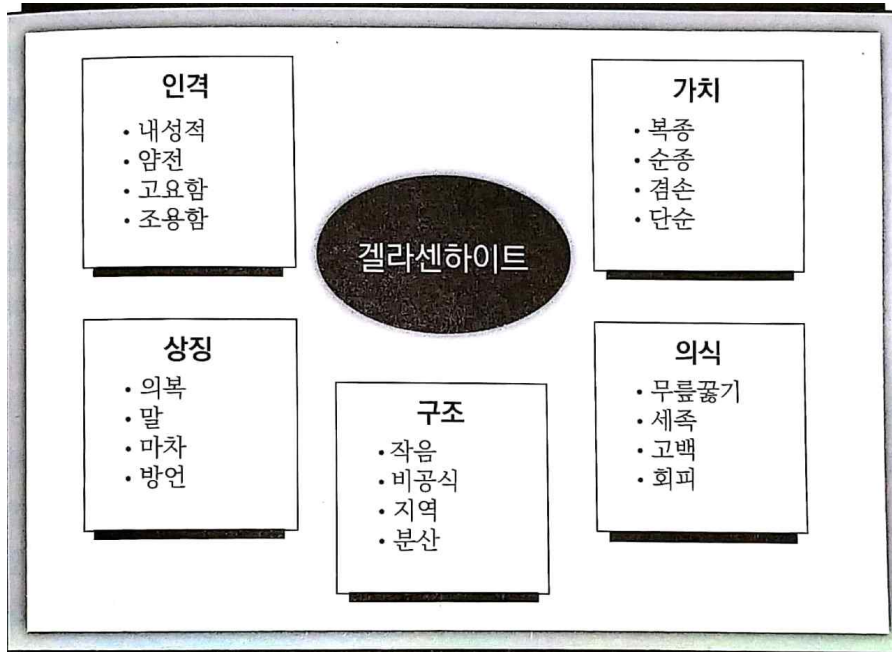
75) 위의 책, 85.

76) 위의 책, 114.

- 군대 불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모든 아나뱃티스트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아미쉬들은 평화주의자들로 군대 가기를 거부하였다. 대다수의 아미쉬 남성들은 어떤 형태의 군대 권위 아래에서든지 그들은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으로 싸우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시험받는 무저항주의자”로 자신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선언했고 일반적으로 인원이 모자란 도시 병원에서 대체복무를 했다.⁷⁷⁾

아미쉬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이 제한된 지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쉬의 삶의 방식에 깊고 끈게 뿌리를 내린 핵심 가치로서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겔라센하이트(Gelassenheit)라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겔라센하이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1) 양보, 물러남, 내적복종, 순종, 이기심 극복 2) 폭력과 교묘한 조작을 거절하고, 고난을 받고, 아집과 오만과 자기주장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 3) 겸손,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생활방식을 표출하며, 오르드농에 대한 순종으로 해석된다.⁷⁸⁾

결국 겔라센하이트는 개인적 관심사와 개인적 에너지를 전체 교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문화적 자본으로 변화시킨다. 겔라센하이트를 문화라는 문법으로 분석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개인의 온유함, 그리고 소규모 조직에 대한 복종이 섞여있다. 겔라센하이트의 온유한 정신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 교회, 장로, 부모, 공동체 그리고 전통과 같은 보다 높은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⁷⁹⁾



겔라센하이트의 5가지 측면⁸⁰⁾

77) 위의 책, 574-575.

78) 위의 책, 184-185.

79) 위의 책, 186.

80) 위의 책, 185.

현재 아미쉬는 미국과 캐나다의 31개 주, 549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의 총인구는 현재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대략 330,47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1970년대 기술과학의 발전, 개인주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⁸¹⁾

3) 브루더호프

기독교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개혁운동의 기치는 한결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수렴된다. 물론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모든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언급하는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과 교회의 태동에 주목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터라이트와 유사성이 많다. 이는 브루더호프가 시작되었을 때, 16세기의 후터라이트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김현진 목사의 책 「공동체신학」⁸²⁾에 소개되어 이미 한국 기독교계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아나뱃티스트 그룹이다. 전 세계에 2,7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산위에 있는 동네이자 세상의 소금으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기독교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그룹이든 대부분의 역사적 기술은 운동의 태동에 70-80%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Plough 출판사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운동을 시작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그의 아내 에미의 이야기⁸³⁾와 현재 브루더호프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 브루더호프의 태동

브루더호프(Bruderhof)는 ‘형제들의 장소’라는 뜻이다. 브루더호프는 1920년 독일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에미 아놀드가 시작한 유무상통의 기독교 공동체이다.

1883년 7월 16일 동프로시아의 쾨닉스베르크(Königsberg)에서 태어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1884년 11월 25일 라트비아 리가(Riga)에서 태어난 에미 폰 홀란더는 1907년 할레에서 열린 성령부흥 운동에서 만났다. 1888년 에버하르트의 아버지 칼 아놀드는 브레스로우 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임용되어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으며, 에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리가의 마지막 독일인 시장으로 봉직하였다. 1897년 에미의 가족은 대학 도시인 독일의 할레(Halle)로 이사하였고 에미는 1902년부터 Halle Deaconess House에서 일을 하였다. 에버하르트와 에미가 만나 약혼하게 된 계기는 1907년 할레에서 열린 성령부흥운동에서였고, 그들은 결혼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했다. 에버하르트는 ‘독일 기독교학생운동’이라는 단체의 대표전도사로 활동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가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한 핵심그룹을 형성한 것은 1920년 프랑크푸르트 북동쪽에 있는 사네레츠(Sannerz)라는 마을에서였는데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말을 빌리자면 ‘산상수훈의 삶을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무상통하는 비전이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이 그

81) <http://groups.etown.edu/amishstudies/>

82) 김현진, 「공동체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434-447.

83) Ian M. Randall, “An Anabaptist Witness: the Bruderhof Community,” (Baptist Theologies 9:2, 2017), 19-36.

롭은 '자신들이 곧 주의 만찬으로 교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증명하기 원했다. 공동체를 시작하자마자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부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게슈타포의 잦은 급습과 괴롭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해체에 직면할 만한 위협을 받았다. 이에 1936년 영국에서 다시 브루더호프를 시작하였고 그 후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오래된 건물들은 개축하였고, 새로운 건물들을 세웠다. 다행히 독일의 멤버들이 피신할 수 있었고 모든 멤버들이 난민이 되어 영국으로 올 수 있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브루더호프를 알게 되었다.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영국에서 처음 산네레츠 공동체가 끌어안았던 평화를 증언하는 삶, 공동체 자체가 교회됨, 땅 위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 아나뱃티스트 사상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다.

② 브루더호프의 핵심 사상

A. 브루더호프는 교회공동체다(Church community). 에버하르트와 에미는 루터교에서 자랐지만, 국가교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에버하르트에게 가장 매력있게 다가온 운동은 근원적 개혁이라 불렀던 아나뱃티스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회, 종교,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적 결단 운동이었다. 그는 독서를 통해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오스트리아 교수인 요한 로세르트(Hohann Loserth)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제이콥 후터가 이끌었던 유무상통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대해 연구한 학자였다. 에버하르트는 티롤 지방에서 있었던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관한 로세르트가 쓴 책 두 권을 읽었다. 로세르트가 이 아나뱃티스트들을 '예수의 사랑과 삶을 순수하게 따른 사람들'로 표현한 것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이 운동을 통해 에버하르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할지 알게 되었다.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아나뱃티스트 교회가 그가 갖고 있던 국가 교회에 대한 사상을 다시금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우선 그는 성례전 특히 유아세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신자들의 세례와 참된 신앙의 표현으로서 세례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례에 이르는 회심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놓고 에버하르트와 에미의 약혼 기간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1907년 5월에 그는 유아세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불과 한 달 뒤인 6월 중순에는 성경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4일자 편지에서 에미는 신자들의 세례만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라고 썼다. 9월 13일 에버하르트는 에미에게 자신은 루터교회의 멤버에서 탈퇴할 것이며 성경의 정신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기록하였다. 그에게 이상적인 교회는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만찬과 교회의 훈계를 따라 사는 교회 공동체'였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모와 에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908년에 있었던 신학박사 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자 침례교를 찾았고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 "예수만!"을 고집했다. 그해 10월에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화이트 엘스터 강(White Elster)에서 세례를 받았고, 12월 에미도 베를린에 있는 블뤼처 펠로우십(Blücher Fellowship)에서 세례를 받았다. 에버하르트는 1909년 프리히드릭 니체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마쳤고, 결혼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살게 되었다.

결혼 후 에버하르트는 성경연구와 설교를 할 기회를 가졌고, 1910년에 다시 할레로 이사를 하여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다. 거기서 그는 3년간 순회전도사로 일하였다. 제이콥 후터가 이끌었던 유무상통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대해 연구한 학자였다. 에버하르트는 티롤 지방에서 있었던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관한 로세르트가 쓴 책 두 권을 읽었다. 로세르트가 이 아

나뱃티스트들을 ‘예수의 사랑과 삶을 순수하게 따른 사람들’

B. 브루더호프는 평화를 증언한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에버하르트는 평화운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1914년 그는 독일의 전쟁을 ‘정당하고 의로운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글을 쓰고, 실제 그해 8월 예비부대에 가담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담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그는 평화와 공동체를 연결하여 기독교가 증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1919년 7월 그는 베를린에서 기독교 학생운동 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산상수훈에 가까운 실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맘몬에 의한 불의,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권력 오용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버하르트와 에미는 1919년 6월 베르사이유(Versailles)조약 후, 영국에서 독일을 방문한 네 명의 역사적 평화주의자들인 퀘이커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가족이 경험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성국가를 방문하여 ‘하나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임을 선포하고 다녔다. 베를린에는 퀘이커들이 전쟁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놀드의 자녀들도 그들의 음식을 배급받았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퀘이커와 함께 드린 침묵 예배를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화해단체(Fellowship of Reconciliation)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 조직은 후에 국제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1926년 국제평화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아나뱃티스트 운동과 더 가까이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1921년 북미에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소식을 캔자스에 있는 타보르 학교의 교수인 에베르트(J.G. Evert)에게서 전해 들었으나, 정작 에베르트는 아미쉬와 후터라이트의 세상과 분리된 삶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1926년 후터라이트들이 공동체를 칭하는 말로 브루더호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듯 그도 브루더호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산네르츠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고,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린(Rhön)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30명에서 60명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때부터 농사, 출판, 자녀교육, 고아를 돌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린 브루더호프 기간에 그는 1930년에서 1931년 북미의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었다. 또한 퀘이커와 FoR과의 연계하면서 그의 평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갔고, 후터라이트가 됨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C. 영국에서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시작하다. 1930년대 히틀러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 독일의 브루더호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에버하르트와 에미의 아들 하디(Hardy)는 1933년 튀빙겐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강의에 초청하고자 했다. 비록 학생회는 매우 호전적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에버하르트의 입장에 감동을 받은 터였다. 이들 중에 이디스 보에커(Edith Boeker)라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후에 하디와 결혼하여 브루더호프에 가입하였다. 1933년 4월 하디는 대학을 취리히로 옮겼고 스위스에서 편지를 써서 독일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후터라이트 장로인 엘리야스 월트에게 편지를 써서 나치가 브루더호프를 위협하고 있음과 약 120명의 브루더호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으로 가지 못했고 대신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하디는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버밍햄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영국에서 다시 FoR운동과 연계되었고, 대략 200명이 모이는 강연회에서 훗날 영국의 첫 브루더호프 멤버가 된 아놀드(Arnold)와 그레이스 메이슨(Gladys Mason)을 만나게 되었다.

1934년 이들은 고백교회를 시작한 마틴 니밀러와 디트리히 본헤퍼를 만나 자신들과 비슷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에서 본헤퍼는 브루더호프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그의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1935년 에버하르트와 하디 아놀드는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재정과 여러 가지 후원을 해준 메노나이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머무는 동안 에버하르트에게 강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많은 강연이 요청되었고 그는 사회정의, 맘몬, 살인, 거짓말, 더러운 행위 등 예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되는 내용들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그들은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에버하르트는 1935년 11월 독일로 돌아가 다리 절단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은 엄청난 손실이었고 공동체는 그를 대신할 리더십을 찾게 되었다.

D. 평화에 대해 좀 더 깊게 헌신하다. 죽기 한 달 전, 에버하르트는 피터 리데만의 저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동체는 교회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36년 코츠월드(Cotswold)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하디 아놀드에 의해 *쟁기(The Plough)*가 편집 출간되었다. 이 잡지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었고 브루더호프는 평화서약연합(Peace Pledge Union)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브루더호프는 평화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PPU는 평화뉴스(Peace News)라는 간행물을 출판하였는데 편집장은 퀘이커의 험프리 무어(Humphrey Moore)였다. 그는 브루더호프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소식을 실으며 ‘공동생활속의 평화주의’라는 제호로 기사를 썼다. 특별히 1년 동안 코츠월드 공동체의 발달 과정을 실으면서 어떻게 친구들을 돕고, 어떻게 건물을 위해 돈을 사용하며, 농장을 사들이며, 물건을 만드는 작업실을 운영하며, 함께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며 공동생활을 하는지 특필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디 아놀드는 바티스트 타임에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광적인 모습과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잔인한 경쟁적인 모습을 고발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아나바티스트 전통과 코츠월드 공동체가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1937년 6월 5일자 평화뉴스는 ‘실천적 이상주의’라는 제호 아래 브루더호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형제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브루더호프는 다양한 모습으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다.

E. 브루더호프는 공동체를 세운다. 평화운동을 하는 교회공동체로서 브루더호프는 단순히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내는 일을 하였다. 193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하였다.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면 살수록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전쟁 중에서도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정부를 상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 1940년 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브루더호프 중 5명 형제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것을 천명했다. 그중에 시드니 힌들리(Sydney Hindley)는 무조건적인 병역면제를 받았다.⁸⁴⁾

이상과 같이 브루더호프에는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현재 브루더호프는 4대륙, 23개 공동체에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무엇인들 중요하지 않은 게 있으리라는 공동의 삶 외에 브루더호프는 *쟁기(Plough)*출판사를 통한 문

84) Ian M. Randall, "An Anabaptist Witness: the Bruderh of Community," (Baptist Theologies 9:2, 2017), 19-36.

서사역,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학교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정신으로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행하며 가족들과 독신자들이 어울려 산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나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말했듯이 브루더호프가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믿음을 토대로 하고 믿음으로 작동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성령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하나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땅의 하나님나라로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그는 공동체로 사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며, 공동체로 살 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⁸⁵⁾ 함께 살 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가난과 소외로 고통을 받는 이가 없고, 진실한 가정이 유지되며, 폭력이 설 수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브루더호프는 작지만, 말 그대로 존재감으로 교회됨을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평화와 섬김의 공동체이다.⁸⁶⁾

4) 메노나이트

메노나이트는 아나뱃티스트 운동 중에 가장 큰 그룹이다. 아나뱃티스가 운동이고 세계관이라면 메노나이트는 여러 그룹들 중 교단을 갖고 있는 교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메노나이트는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박해로 인해 명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톨릭 신자였던 메노 시몬스의 리더십으로 이 운동에 다시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는데,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메노나이트(처음에는 메니스트, 메노니스트라 부름)라고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 평화교회, 자유교회, 회중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메노나이트 그룹은 콩고이며,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다양한 메노나이트들이 살고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세계협의회(Mennonite World Conference)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서로 돕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107개 교단이 MWC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총 9,624개 교회에 14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는 2016년 2월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ennonite Church South Korea)이 결성되어 작지만 서로 돕는 공동체를 꿈꾸며 서로 배우고 있다. 이 글은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모든 설명은 생략하고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소개할 만한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계에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알려진 공동체는 시카고 북쪽의 에반스톤에 위치한 레바 플레이스이다. 이 공동체 역시 김현진 목사의 책과 국내 석사학위 논문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잘 알려진 레바 플레이스를 생략하고 다른 공동체를 설명하려는 이유는 실제로 메노나이트 교회 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들 중에 한국 교회에 가장 친근하고 실현가능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메노나이트 공동체에는 앞서 설명한 후터라이트, 아미쉬, 브루더호프와는 사뭇 다른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메노나이트 공동체라고 할 때는 앞서 언급한 공동체 이해와는 좀 더 열린 생각으로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

85) 에버하르트 아놀드, 「공동체로 사는 이유」, 김순현 옮김, (파주: 비아토르, 2018), 55-90.

86) <https://www.bruderkhof.com/ko>

기에서는 돌봄의 공동체인 그린크로프트와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 및 기타 생각해 볼만한 한시적 공동체의 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그린크로프트 - 돌봄의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 역사는 16세기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난받는 교회로 살던 이들은 박해를 피해 순례의 여정을 걸어왔다. 이들이 따라간 경로는 스위스 - 독일 - 모라비아 - 체코 -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미국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미국의 캔자스주, 네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다코타주, 그리고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에 사는 메노나이트들은 러시아에서 온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루던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러시아에서 형성한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하나의 마을로서 마을 중심에 학교와 공공건물을 위치시키고, 마을 외간에 헛간, 양, 소, 동물을 키우는 헛간이 위치해 있고 그 너머로 공동체 소유의 초원이 펼쳐졌다. 대개 집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고, 작게는 10호, 많게는 40호에 이르렀다.⁸⁷⁾

특히 러시아 지역에서 몰로치나(1797)와 코르티자(1800) 자치구가 유명하다. 이들은 공동체로 살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공유했다. 메노나이트들은 매우 잘 조직된 교육제도와 상호부조 제도를 이루어 냈다. 이들 공동체는 1800년대 말까지 번영을 누리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박해를 피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⁸⁸⁾ 특별히 미국의 중서부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러시아에서 시행하던 노약자들을 위한 돌봄의 공동체를 미국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메노나이트 돌봄의 공동체 혹은 실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린크로프트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세운 대표적인 돌봄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돌봄의 공동체들은 주로 메노나이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가족과 함께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 처음에는 메노나이트 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에는 도시의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린크로프트 공동체는 노인들에게 집, 필요한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된다. 1922년 해밀턴 그로브를 필두로 현재까지 총 6개의 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디애나 고센, 미들버리, 사우스 밴드, 뉴 칼리슬, 데모테 그리고 오하이오의 월넛 크릭에 위치해 있다. 이 공동체들은 메노나이트 가치와 수준 높은 돌봄의 표준을 따라 모든 늙어가는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살아가며 주어지는 도전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애쓴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1922년, 인디애나주의 뉴 칼리슬에 설립된 해밀턴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인디애나주 북서쪽의 약 250에이커(30만평)의 숲이 펼쳐져 있는 농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빼어나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함께 호흡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집부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는 노인 거주 공간이다. 총 270명이 거주하며, 150명의 도움이들이 상주하여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설립된 공동체는 1962년 고센에 설립된 그린크로프트로 1,200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550명의 전문 의료인과 간호사와 도움이들이 상주하고 500명의 자원봉

87) Cornelius Krahn, "Mennonite Community Life in Russia," Conference on Mennonite Sociology, Chicago, Illinois, 1941.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16 no 3 Jul 1942, 174.

88) Cornelius Krahn, 174-175.

사자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이 후에 더 작은 규모로 오하이오주의 월넷 힐스(260명 거주, 1971년), 데모테의 오크 그로브(120명 거주, 1999년), 인디애나 미들버리(38명 거주, 2003년)이 설립되었다.

이들 공동체는 은퇴한 건강한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공동체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공동체 유형이다.

65세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 구조에서부터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 없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이다. 고센의 그린크로프트의 경우 전체 공동체의 배치는 가운데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센터가 있고, 대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배당과, 소규모 예배실, 상담실, 도서관, 컴퓨터실, 영화관람실, 오락실, 각종 모임방 등이 배치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갖고 파트타임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단계로 접어들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완전히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문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특별히 고센의 그린크로프트에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사는 주거공간이 공동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말기환자 돌봄 서비스가 주어진다. 그린크로프트 옆에 메노나이트 장례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지기들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까지 공동체 지체들의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메노나이트 정신에 입각하여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보내고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배려하고 있다.

양로원이 아닌 돌봄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메노나이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지기직(stewardship)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도록 도와준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외진 곳에 있지 않고 도시 끝자락에 위치하여 도시 내에 살고 있는 여러 친척과 자녀들이 언제든지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②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Mennonite Voluntary Service Advdnture)

공동체란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에 최소한 94개의 서로 다른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토마스 벤더가 언급했듯이 공동체를 고정된 정적인 의미가 아닌 동적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는 공동체의 시간성이나 역사성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맥락이 좀 다르겠지만, 스캇 펙은 「평화만들기」라는 책에서 한시적인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약 4년 스캇 펙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정신과 의료 활동에 참여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곳에서 병사들을 만나면서 혹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동체적 실험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단기간 한 장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그룹을 하나의 공동체 그룹으로 이해하였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기간 동안 머물다 가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는 어떤 그룹은 단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강한 공동체성을 띠는 반면, 어떤 그룹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다.⁸⁹⁾

그러면서 그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할수록 공동체 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그 열의가 바로 헌신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

89) Scott Peck, 「평화만들기」, 열음사, 49-51.

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동체다'라고 규정할 때, 한시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두고 공동체성을 격려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를 메노나이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자, 한시적 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되는 성인 청년들에게 1년 혹은 2년간의 봉사의 기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 집에서 함께 살면서 더 큰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때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은 인근 메노나이트 교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노숙인들,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정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개인들이 거주하는 한시적 공동체다. 이들이 사는 집과 봉사를 하는 장소와 대상지는 분리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목적이 있다. 함께 살면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하므로 실제 생활공동체 못지않게 서로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메노나이트 교회가 후원하여 캐나다 세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간에 공동체를 이루면 사는 각 사람과 같은 가치에 헌신하도록 한다.

- 상호책임(Accountabilit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필요한 프로그램과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메노나이트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을 따라 일터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 영적훈련(Spiritual Disciplines):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가며,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자기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자라가며, 용서하고, 화해한다.
- 공동체안의 삶(Living in Community):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우리는 신뢰를 쌓기우며, 우리가 함께 살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해 나간다. 서로를 존중하며 리더십을 공유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한다.
- 교회와 문화(Relating to Church and Culture)와의 관계: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인 지역교회에 참여한다. 우리는 서로 문화적 맥락이 다르더라도 함께 사는 동료, 신자들, 우리를 초대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도덕, 사회,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한다.
- 개인의 증언(Personal Witnes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로 헌신하며, 인종차별, 폭력, 성추행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남용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들에 대해 맞선다. 우리는 건강한 몸과, 생태계, 정의로운 분배와 지혜로운 청지기직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말, 행동, 봉사 혹은 개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방식과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 성적인 친밀감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므로 신뢰를 쌓아가되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다.
- 훈계와 화해에 대해 열린 마음(Openness to Admonition and Reconciliation): 이러한 헌

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동기와 행동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용서를 추구하고, 회복을 위해 소통하며, 함께 관계가 나아지도록 열린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화해의 여정으로 나아간다.

- 주어진 일에 헌신함(Commitment to Assignment): 우리는 봉사하며 배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다. 우리는 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주어진 일과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적 기술과 영적 은사를 사용한다.

공동숙소에서의 삶 - 위니펙의 숙소는 3층 단독 주택으로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숙소에 살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한 기쁜 일과 염려되는 일을 함께 나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씩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공동체로서 다함께 외식을 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인다.

베델교회는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는 후원교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숙소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위원들이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며, 1년에 1-2회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다.⁹⁰⁾

③ 그 외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예는 꽤 많다. 우선 교회마다 특색이 있지만, 공동체성이 매우 강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교회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상호부조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교회들이 꽤 많다. 보수적인 메노나이트 일수록 시골지역에 살면서 공동체로 사는 경향을 보이며, 대도시로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들이 적잖다. 20세기 이전의 메노나이트들은 유무상통은 아니지만 메노나이트들만의 독특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도시화, 현대화를 맞이하면서 공동체에 변화가 찾아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와 제도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새로이 적응하는 공동체들의 예도 적지 않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50년 전에 시작한 세인트 클레어 오코너 커뮤니티는 토론토 유나이티드 메노나이트 교회와 댄포스 메노나이트 교회가 함께 한 아파트 프로젝트, 이웃을 위한 사역 및 시니어 돌봄 프로젝트는 비록 지금은 두 교회가 지역사회에 운영권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신이 살아있다.

위니펙의 베델교회와 찰스우드교회가 협력하여 세운 베델하우스 역시 아파트 및 시니어 돌봄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55+시니어들이 모여서 10가구로 모여 사는 형태의 공동체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경험되고 있다.

이것을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시적인 공동체의 또 다른 예로서 메노나이트 캠프가 존재한다.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하나가 되는 멋진 캠프들이 메노나이트 교회 구성원들의 삶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장발달에 맞는 활동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회는 자녀들에게 연령에 맞는 캠프 기회를 제공한다.

90) <http://www.mvsa.net/>

두 개의 캐나다 메노나이트 대학은 1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침과 교제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Quest 프로그램과 Out of town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또한 한시적인 공동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년배들과 놀고, 쉬고, 봉사하면서 1년을 보내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몇 가정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경험이 있다. 한시적이지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교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성을 실험하였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한 형태의 대안공동체를 찾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제한된 지면이지만 아나뱃티스트 교회와 공동체를 살펴보았다. 글의 첫 부분에서는 공동체와 교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나뱃티스트 교회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용어를 번갈아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교회가 곧 공동체인 모습으로 수 백 년을 살아왔음도 살펴보았다. 후터라이트와 브루더호프는 교회가 곧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실제 사례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정을 걸어온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림과 네 개의 서로 다른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면모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글을 마치면서 우선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신학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별히 사회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공동체에는 최소한 94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므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해보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분명한 이해와 소통으로 인해 공동체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혹은 공동체가 이 두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만큼 건강한 공동체성을 함유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공동체 사례들을 살펴보으로써 그렇다면 이 한국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질문이 놓여있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권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풍조를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일까?
- 새로운 문화가 공동체에 변화를 요청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 교회 공동체가 변화를 선택할 때, 속도, 의사소통, 핵심가치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들을 어떻게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일반화와 구체화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 어느 부분까지 공동체고 어느 부분까지 교회인가?
- 어느 부분까지 개인, 가족, 교회의 영역인가?
-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지칭하여 사이버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공동체의 정의는

얼마나 더 확대되고 달라질 것인가?

- 공동체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준을 세울 것인가?

결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원형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로 겹치는 모습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의 소통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주제넘은 일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준비 단계부터 기도와 성령의 소통 즉 모든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고 싶다. 공동체로서 메노나이트 교회는 서클로 대화한다. 이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누군가가 군림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한다. 어찌 보면 메노나이트가 그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체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공동의 분별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디 한국 교회에 공동체성이 회복됨으로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귄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고후13:13) 아멘.

5. 참고자료

[한국서적]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무실, 1987, 106.
임종운. 「복미 기독교 공동체 사회」 서울: 북랩, 2017

[번역서]

Arnold, Eberhard, 「공동체로 사는 이유」. 김순현 역. 파주: 비아토르, 2018.
Bruderhof Community. 「우리의 믿음과 소명」. 미국: 플라우출판사, 2015.
Driver, John. 「교회의 얼굴」. 전남식 이재화 역. 대전: 대장간, 2015.
Dunbaugh, Donald. 「신자들의 교회」. 최정인 역. 대전: 대장간, 2015.
Dyck, Christopher J. 「아나뱃티스트 역사」. 김복기 역. 대전: 대장간, 2013.
Estep, William. 「재침례교도들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 1985.
Hopfer, John.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김복기 옮김. 서울: KAP, 2008.
Hostetler, John.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김복기 옮김. 서울: KAP, 2007.
Johnson, Luke T. 「공동소유 미심쩍은 초대교회의 이상」. 박예일 옮김. 대전: 대장간, 2013.
Kraybill, Donald B.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정성국 옮김. 서울: CLC, 2018
Riedemann, Peter. 「피터리더만의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서」. 존 H. 프리즌 영어번역. 전영표 옮김. 대전: 대장간, 2018.
Snyder,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Williams, George H. 「성령주의와 아나뱃티스트 종교개혁자들」. 남병두, 홍지훈 옮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Yoder, John Howard. 「교회, 그 몸의 정치」. 김복기 역. 대전: 대장간, 2011.

[원문도서]

Burkholder, Lawrence.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8,

Kauffman. J. Howard and Driedger, Leo. *The Mennonite Mosaic Identity and Modernization*. Herald Press, 1991.

Kraus, Norman. *The Community of the Spirit*, Herald Press, 1993.

[외국논문]

Krahn, Cornelius. "Mennonite Community Life in Russia." Conference on Mennonite Sociology, Chicago, Illinois, 1941.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16 no 3 Jul 1942, 174-177.

[학술논문]

박주원. "16세기 동양과 서양의 공동체 이념에 대한 비교 연구." 「시민사회와 NGO」 Vol.9 No.2 (2011).

김난예. "아미쉬의 신앙과 삶이 현대에 주는 메시지." 「기독교교육논총」 Vol. 50 No (2017).

최형근.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관한 고찰." 「神學思想」 Vol.161 (2013).

[학위논문]

구남전. "교회 공동체성(共同體性)에 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민한기. "한국교회의 코이노니아(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지훈.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오명림,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고찰과 의미 : 하나의 개혁주의 공동체 모델을 위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명식.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에 관한 研究."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상운. "공동체 교회론 모색 : L. Boff의 삼위일체론 유비와 다중 개념을 통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황대진. "이상적인 예수 공동체의 실현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간행물]

김복기. “교회와 공동체.” 「한국아나뱃티스트 저널」 2014 여름호 통권 6호, 48-61.

김복기. “메노나이트의 기원과 성격.” 「농촌과목회」 2017년 가을호(제75호), 45-62.

김복기. “아나뱃티스트 운동과 자유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논문」 자유교회 전통의 관점에서 본 종교개혁, 2017, 25-42,

김태식. “아미쉬의 역사와 신앙: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논문」 자유교회 전통의 관점에서 본 종교개혁, 2017. 46-57.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와 세상 살기

김난예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아나뱃티스트와 공동체
 - 1. 아나뱃티즘의 의미
 - 2.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의미
- III.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근거
 - 1. 기독교론
 - 2. 교회론
 - 3. 종말론
- IV. 세상과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 1. 반평화주의 비판
 - 2.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예수따르기 삶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한 결과 발표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왔다. ‘남을 잘 돕는다’ 14.3%, ‘약자 편에 선다’ 9.5%, ‘도덕적이다’ 8.3%,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한다’ 8.3% 등의 긍정 항목에서는 ‘그렇다’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반면, ‘이기적이다’ 68.8%, ‘물질 중심적이다’ 68.5%, ‘권위주의적이다’ 58.9%, 등의 부정 항목에서는 ‘그렇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6%,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7.9%였으며,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개신교를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9-2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경제수준이 상/중상인 집단,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⁹¹⁾

한국교회가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신뢰도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는 교회 본질의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목회)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이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교회 신뢰도 위기의 극복을 위해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예수 따름기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회

91)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서울: 도서출판 URD, 2018), 206-207.

복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할 목적을 가지고 II장에서 아나뱃티즘의 의미와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III장에서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를 논구한 다음, IV장에서 세상 속에서 아나뱃티스트들의 예수 따르기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1. 아나뱃티즘의 의미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1525년 10여 명의 스위스 형제단이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은밀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스위스에서 기원한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시작이었다.⁹²⁾ 그러나 이 운동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 아니라 스위스, 독일, 모라비아, 화란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아나뱃티즘을 배경으로 하는 교단 또는 공동체는 후터라이트공동체, 스위스 형제단, 메노나이트, 아미쉬공동체, 브루더호프공동체 등이 있다.

아나뱃티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롤드 벤더는 『재세레파의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 아나뱃티즘의 비전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그는 첫째, 기독교의 본질을 개인 신자와 사회의 전 삶의 변혁을 의미했던 개념인 제자도로 규정하였고, 둘째, 새로운 삶의 중심 원리에 의해 창조된 교회의 새로운 개념으로 형제애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사랑과 무저항의 윤리로 규정하였다.⁹³⁾

파머 베커도 아나뱃티즘의 핵심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첫째,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요구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시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셋째, 화해와 평화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크리스천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 라고 하였다.⁹⁴⁾

수년 전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 회원들은 아나뱃티즘의 본질을 다음의 일곱 가지 핵심 신념들로 정리하였다.⁹⁵⁾

1.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선생이요, 친구이자 구원자이며,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과 참다운 교회 모습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적 계시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예수중심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는 성경을 읽고 함께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현장이다.

92) 이상규, “재세례 신앙의 기원과 기본 정신,” 이윤식 편, 『재세례 신앙의 역사와 고백』 (서울: KAP, 2001), 51.

93) Stanley Hauerwas et al. ed., *The Wisdom of The Cros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12-13.

94) Palmer Becker,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김복기, 김경중 역,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춘천: KAP, 2009), 17-61.

95) Stuart Murray,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대전: 대장간, 2011), 70-71.

3. 서양문화는 서서히 크리센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 크리센돔이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사회를 다스렸으며, 이 사회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했던 시대를 말한다. 이 크리센돔이 사회의 가치와 제도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떠나서, 이것이 복음을 심각하게 변질시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복음의 중심에서 소외시켰으며, 교회로 하여금 포스트 크리센돔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기에, 크리센돔의 가치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주류 기독교 전통을 대신할 수 있는,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통으로 아나뱃티즘을 택하였다. 이 아나뱃티즘은 크리센돔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대안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추구하였던 사람들이 남겨 놓은 전통이다.
4. 교회가 세상적 지위, 부, 권력과 습관적으로 결탁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 그 자체가 가난하고 힘 없으며 박해받는 이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갈구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제자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자의 마음이 열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교나 다른 고통도 줄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교회란 제자도, 선교, 친교, 상호 책임성,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예배를 위해 헌신된 공동체를 일컫는다. 우리가 주님의 삶과 피에 동참하면서 음식도 함께 나누듯이 하나님나라를 향한 희망도 함께 가진다.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모두 존중받으며,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지도력을 추구하며 성(性) 구분이 아니라 은사에 근거한 역할 분담을 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짐례를 베푸는 그러한 교회들을 발전시키고 양육하기를 원한다.
6. 영성과 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개인주의와 소비지향적 문화,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한 삶, 관대하게 나누는 삶, 창조세계를 돌보며,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삶을 추구한다.
7. 평화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 세상에 비록 분열과 폭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개인 간에, 교회 간에, 사회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비폭력적 대안을 찾는 일에 전념한다.

이상에서 볼 때 아나뱃티즘 전통은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의 모방, 제자도, 신자들의 교회, 형제의 사랑, 공동체, 성인세례, 십자가,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 국가와 사회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자발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⁹⁶⁾

2.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의미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공동체 삶이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면 브루더호프공동체는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거주하는 형태의 공동체 삶을 영위하고, 아미쉬공동체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아미쉬가족들이 하나의 부락을 이루는 형태의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반면, 메노나이트는 일반인들의 삶과 비슷한 삶의 모습이지만 형제애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공동체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공동체들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소명으로 이해한다. 하나님나라를 위한 삶이 교회공동체로 인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브루더호프공동체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 공동체로의 소명에 대

96) 정원범, 『신학적 윤리와 현실』, 58.

해 이렇게 설명한다.⁹⁷⁾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세계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길 원하신다. 그는 그들을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라고 그들을 부른다. 그들 가운데 사적인 재산은 사라지고, 그들은 연대와 평등의 띠로 결합된다. 그리고 거기서 각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 속하고, 내가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때 예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된다. 처음 오순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생겨났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함께 모였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부여될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의 친교를 통해 그들의 소유, 재능, 삶을 나누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소명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동의 삶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적인 재산, 개인적인 권리 주장, 세속적인 집착과 명예를 포기한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모든 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과 인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천명한다.⁹⁸⁾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곧 겸손과 연약함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섬김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⁹⁹⁾하기 때문이다. 에버하르트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⁰⁰⁾ 즉 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생명체는 공동체적 질서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향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런 적극적인 모험 안에서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생명을 주시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③ 우리는 자유, 일치, 평화,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막연한 소망에 대해 신앙의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⑤ 구약의 예언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⑥ 기쁨과 사랑의 성령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도록 강권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들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⑦ 자연계를 일치로 부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노동과 문화가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그 동일한 창조적인 일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기 때문이다.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공동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공동체의 삶의 의미에 대해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께서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인류를 향해 외치시는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97) The Bruderhof, *Foundations of our Faith and Calling*, 5-7.

98) The Bruderhof, *Foundations of our Faith and Calling*, 7.

99) <https://www.bruderhof.com/ko/life-in-community>

100) Eberhard Arnold & Basil Pennington, *Why We Live in Community*, 편집부 역, 『공동체로 사는 이유』, 25-55.

보여준 공동체 삶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방식이 현대 사회가 부와 자아를 강조함으로써 초래한 고립, 갈등,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¹⁰¹⁾이라고 말한다. 에버하르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⁰²⁾ ① 공동체는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② 공동체는 신앙의 응답이다. ③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④ 공동체는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징표이다. ⑤ 공동체는 사랑과 일치로의 부르심이다. ⑥ 공동체는 희생을 의미한다. ⑦ 공동체는 신앙의 모험이다.

따라서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공동체이다. 이에 대해 월프레드 화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⁰³⁾ 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할 때 예수의 비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②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이라는 가치 체계에 의해 형성되며, 강력한 사랑의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는 관계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다. ③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의 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제자들은 서로 상처가 있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로 헌신한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④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바, 세상 폭력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교회를 향한 예수의 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폭력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의 길이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⑤ 우리는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서로 돌아볼 때 비로소 교회를 향한 예수의 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교회는 상호부조 및 상호협력의 공동체이다. ⑥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뿐 아니라 세상 속의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때 비로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섬김의 공동체이다.

Ⅲ.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

1. 기독론

무엇보다도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는 기독론이다. 이 점에 대해 메노나이트 총회는 “우리의 평화 원칙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평화와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강조에 기초한다.”¹⁰⁴⁾고 말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이자 주님이시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101) <https://www.bruderhof.com/ko/life-in-community>

102) Eberhard Arnold & Basil Pennington, *Why We Live in Community*, 편집부 역, 『공동체로 사는 이유』, 31-69.

103) Walfred Fahrer, *Building of the Rock*, 김복기 역, 『반석 위에 세우리라』 (춘천: KAP, 2012), 26-139.

104) Guy F. Hershberger, *War, Peace and Non-resistance*, 최봉기 역 『전쟁, 평화, 무저항』 (대전: 대장간, 2012), 399.

“우리의 신앙은, 주와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최고의 충성과 복종을 드린다.”¹⁰⁵⁾고 고백한다.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 회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선생이요, 친구이자 구원자이며,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과 참다운 교회 모습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다.”¹⁰⁶⁾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매일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 매일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투어트 머레이는 주류교회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¹⁰⁷⁾

주류교회-가톨릭과 개신교-는 여전히 예수를 소외시켰다. 예수가 삶 속에서 따라야 할 대상이 되기 보다는 그저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준 예수의 속죄 사역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정작 그의 삶과 가르침에는 인색하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열광하면서 읽었으나 복음서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주류교회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예수 따르기를 강조한다. 16세기 아나뱃티스트 리더였던 한스 덴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⁸⁾

둘째,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주장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특성을 가진다.¹⁰⁹⁾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한다. 예수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¹¹⁰⁾ 첫째, 종교는 인간 실존의 내적 측면을 다루지만, 정치는 외적 측면을 다룬다고 보기 때문이며, 둘째, 모든 소유를 거저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셋째, 예수의 말씀은 개인의 행동과 동기부여에 초점이 있어서 사회나 정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며, 넷째, 예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에게나 삶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다. 유대인들이 심각한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던 시절에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흠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눅1:51-53) 이렇듯 마리아 찬가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예전의 용어가 아니라 급진적인 사회변화(사회비판)의 용어이다.¹¹¹⁾ 예수의 사명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의 사역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105) 위의 책, 406.

106) Stuart Murray,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대전: 대장간, 2011), 70, 77.

107) 위의 책, 83.

108) 위의 책, 87.

109) J. H. Yoder, *Revolutionary Christian Citizenship*, 최태선, 임요한 역, 『혁명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대전: 대장간, 2017), 33.

110) 위의 책, 41-42.

111) 위의 책, 44-45.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예수 사역의 핵심요소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위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즉 정치와 관계가 있다.”¹¹²⁾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수의 사역과 주장은 그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선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¹¹³⁾고 요더는 말한다.

2. 교회론

기독론과 함께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는 교회론이다.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교회론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소수의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교회 이해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이다. 전통적인 주류교회가 과거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사회를 다스렸던 크리스텐덤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비판하며 “참된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라고 주장한다. 둘째,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소수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우리의 순종의 기초가 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⁴⁾ 셋째, 교회는 세상과는 철저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대안적 공동체이다. 요더가 말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주지 않으시고 새로운 백성됨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는 인류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이에 대해 요더는 이렇게 말한다:¹¹⁵⁾ 즉 ① 모든 사회는 처벌이나 교화를 통해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범죄자를 다루는 다른 방법을 주셨다.-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② 모든 정치 구조에는 군주제나 민주제와 같이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도 아래 대화와 의견 일치로 결정을 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③ 모든 사회에는 사람들을 계층화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동등한 존엄이 확인되는 사회를 세운다. ④ 모든 정치적 체제에는 돈을 취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나누는 것으로 돈을 취급하는 공동체를 세운다. ⑤ 모든 정치적 체제는 종족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일을 한다. 즉 정치적 체제는 생물학적이든 민족적이든 또는 다른 문화적 요소이든 그 안에 외부인과 내부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세운다. ⑥ 모든 정치적 체제는 폭력과 죽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권력의 극단적인 형태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폭력도 없어야 하는 사회를 세운다.

3.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과 더불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는 종말론이다. 아나뱃티스트 종말론의 기본 공식으로서 기독교인은 두 시대 즉 옛 시대(old aeon)와 새 시대(new aeon)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더는 이렇게 말한다.

112) 위의 책, 49.

113) J. H.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36.

114)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116.

115) J. H. Yoder, *Revolutionary Christian Citizenship*, 최태선, 임요한 역, 『혁명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55-56.

현재 시대는 죄가 특징이며 인간이 중심이지만 도래하는 시대는 그리스도 안의 궁극적 길 속으로 역사가 진입하게끔 하는 구속적 실재이다. 지금의 시대는 순종을 거부하여 인간 자신을 안녕하게 할 수 있게 한 유일한 근거를 거부한다면, 도래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특징이 될 것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능하다는 보장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는 교회 안의 성령의 임재이다. 따라서 비록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단지 미래의 시기만을 말하지 않는다. 옛것은 새것으로 이미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그 승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그 몸은 먼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고, 다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순종하는 신자들의 교제를 말한다.¹¹⁶⁾

신약성서는 현재를 두 시대가 겹치는 시대로 보고 있다. 두 시대는 별개의 시간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과 방향이 꽤 다르다. 하나는 그리스도 바깥(이전)의 인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각 시대(aeon)는 사회적 형태를 보인다. 전자는 이 세계 속에서, 후자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몸에서이다.¹¹⁷⁾

여기서 요더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된 새 시대는 옛 시대보다 우월하며, 옛 시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최종적으로 옛 시대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옛 시대를 포기할 때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⁸⁾

IV. 세상과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1. 반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는 주로 기독교 평화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보는 주류신학의 반 평화주의를 비판하는데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크게 콘스탄틴주의와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된 정당전쟁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콘스탄틴주의 비판

아나뱃티스 공동체는 평화의 복음의 왜곡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콘스탄틴주의, 즉 교회가 걸어가야 할 평화주의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콘스탄틴주의¹¹⁹⁾를 비판한다. 콘스탄틴주의란 기독교의 왜곡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은유로서¹²⁰⁾ “교회와 세상의 동일시를 상호 승인한 것”¹²¹⁾을 의미한다. 교회와 국가 간의 상호 협력과 지지와 합법화를 통한 정치적 타협을 일컬어 일반적으로는 크리스텐덤(기독교제국 또는 국가교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²²⁾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116) J. H. Yoder,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김기현 역,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증언』, 26.

117)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78-79.

118) 위의 책, 81-83.

119) 위의 책, 147.

120) Philip LeMasters, *The Import of Eschatology in John Howard Yoder Analyzed from a Roman Catholic Perspective*, 91.

121)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89; J. H. Yoder,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154.

122) Stuart Murray,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교 공인 이후 교회는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교회는 그 질서를 합법화해주었고, 국가의 정책과 실천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였다.¹²³⁾ 이때 이후 콘스탄틴적 교회는 교회의 소수자 신분을 망각하고 기득권 태도로 탈바꿈하였으며,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였다.¹²⁴⁾ 이에 대해 요더는 이렇게 말한다.¹²⁵⁾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군대와 제국의 폭력을 거절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분담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폭력을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과 하나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교회와 제국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성공하게 되었으나, 예수를 복음의 중심에서 소외시켰으며 복음의 변질을 초래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생각한다. 사랑과 평화의 기독교가 정복과 권력과 지배의 가치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¹²⁶⁾

이러한 교회와 세상과의 동일시 현상 또는 융합 현상은 콘스탄틴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역사 속의 교회는 그동안 지배적 사회질서나 권력구조나 당시 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세속주의와의 동맹관계 또는 공생관계를 맺어옴으로써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평화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요더는 비판한다.¹²⁷⁾

2) 정당전쟁론 비판

둘째로, 아나뱃티스트는 콘스탄틴주의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정당전쟁론을 비판한다. 콘스탄틴적 전환이 있기 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폭력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교도에서 개종했던 유스티누스는 “우리는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적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 앞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기꺼이 죽겠노라”고 하였고,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병사의 무장해제를 명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며, 오리제네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전통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이제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칼을 겨루지 않으며 더 이상 전쟁 기술을 익히지도 않는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¹²⁸⁾

그러나 이러한 전쟁 거부의 입장은 교회와 국가가 동맹을 맺은 이후 전쟁을 정당화하는 정당전쟁론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대 기독교 전쟁 이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109.

123) 위의 책, 111.

124)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146-147.

125) J. H. Yoder,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 Press, 1984), 135.

126) J.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자크엘룰번역위원회 역, 『뒤틀러진 기독교』 (대전: 대장간, 1994), 62.

127)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165-176.

128) Thomas Merton, *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조효제 역, 『머튼의 평화론』 (왜관: 분도출판사, 2006), 81-82, 88.

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참혹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그에 따르면 우리 내면의 행동 동기가 진정으로 정당한 명분과 적에 대한 사랑에 의해 우러나온다면 그런 경우에는 폭력의 사용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다.¹²⁹⁾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에 와서 신학자들은 정당한 전쟁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다.”¹³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주류신학자들은 정당전쟁론을 발전시켰으나 그들은 전쟁보다는 평화에 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전쟁은 제한되어야 하고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 7가지의 원칙을 제시한다.¹³¹⁾ 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올바른 태도(보복적 태도가 아닌 정의의 회복)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합법적 권위에 의한 사전 선전포고가 있어야 한다. ⑤ 전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⑥ 전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초래되는 악을 능가해야 한다. ⑦ 비전투요원에 대한 폭격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정당한 전쟁 이론은 특정 유형의 폭력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설정하려고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¹³²⁾

그러나 이러한 주류신학자들의 입장과 달리 고대교회의 전쟁 거부의 입장을 다시 회복한 개혁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16세기의 아나뱃티스트 개혁자들이다. 1524년 스위스 형제단의 리더였던 콘라드 그레벨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언약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검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검에 의해 보호를 받지도, 또 그렇게 검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1544년에 남부 독일의 리더였던 필그람 마팩은 “모든 육체와 세상과 세속과 땅위에 속한 싸움, 분쟁, 전쟁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의해 폐지되고 취소되었다.....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하셨다.”고 하였다. 또한 후터라이트 리더였던 피터 리드만은 1545년에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 즉 그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이다. 이 나라에서 모든 세속적인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보복을 위해 칼을 지녀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¹³³⁾

이렇게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전쟁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훈과 정신, 복음에 위배되며 모든 육체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죄를 짓는 것”¹³⁴⁾이라고 생각하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적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선한 뜻으로 살며 우리 주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시는 평화의 복음임을 믿는다.”¹³⁵⁾

2.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예수 따르기 삶

129) 위의 책, 94-96.

130) 위의 책, 100.

131) Edward LeRoy Long, Jr. *War and Conscience In America*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68), 24-32.

132)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157.

133) Herold Bender, *The Anabaptist Vision*, 김복기 역, 『재세례신앙의 비전』 (춘천: KAP, 2009), 106-108.

134) Guy F. Hershberger, *War, Peace and Non-resistance*, 최봉기 역 『전쟁, 평화, 무저항』, 400.

135) 위의 책, 399.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삶은 한 마디로 예수 따름의 삶이다.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철저히 예수의 인격과 사역, 그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고백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 약 300년 동안 초기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등장 이후 기독교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하나는 콘스탄티누스이고 다른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¹³⁶⁾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아주 다른 모습의 종교가 되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톰슨은 이렇게 말한다.¹³⁷⁾

4세기 교회의 승리는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승리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콘스탄틴과 더불어 통치계급, 부자, 세속적인 것들이 그들의 도덕적 질, 사회적 지위, 일상적인 행동양식과 뒤섞였다. 그 결과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종교가 정치나 정책에 종속되며 저변에 있던 남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상을 낮추고 졸부의 타락한 영향력, 영적인 경직성을 가져왔다.....교회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이교도 귀족들의 지지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 교회 권위의 증가는 영적 활기를 상실한 대가였다. 이와 같은 타락의 속도는 타락의 정도만큼 놀라웠다.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나기 전 3세기에 고통스러웠던 적대감이나 박해보다도 변명을 개탄할 이유가 교회에 많아졌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4세기 교회의 도덕적 종교적 생리에 대한 연구주제는 건강상태가 아닌 도덕적 손상, 부패, 남용이라는 질병상태에 관한 것 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심을 두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에도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이 빠져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라는 고백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라고 고백한다.”¹³⁸⁾

뿐만 아니라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준 예수의 속죄사역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정작 그의 삶과 가르침에는 인색하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믿음과 삶의 중심이신 예수보다도 그의 죽음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의 글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는 더 이상 믿음과 삶의 방식의 기준점이 아니었으며 예수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참여에 대한 참 조언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¹³⁹⁾ 그 결과 종교개혁자들의 설교가 새로운 삶으로의 갱신과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고, 루터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에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모임을 조직하지 못했다.”¹⁴⁰⁾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던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사도신경과 루터와 츠빙글리가 선포했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136) Palmer Becker,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김복기, 김경중 역,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21.

137) Guy F. Hershberger, *War, Peace and Non-resistance*, 최봉기 역 『전쟁, 평화, 무저항』, 124-125.

138) Palmer Becker,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김복기, 김경중 역,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22-23.

139) Suart Murray,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83.

140) Herold Bender, *The Anabaptist Vision*, 김복기 역, 『재세례신앙의 비전』, 62.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수따라 살기-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신조를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제자도이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⁴¹⁾ 이에 대해 한스 댁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¹⁴²⁾고 주장하였다.

스튜어트 머레이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나뱃티스트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적들까지도 사랑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아나뱃티스트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헌신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겸손하며 관용을 베풀며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모델이 된다. 또한 아나뱃티스트는 구원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와 창조세계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¹⁴³⁾

또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요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도의 다른 표현”¹⁴⁴⁾이라고 말했듯이, 주님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더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역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졌던 대가였다. 그것은 바르게 행함으로서의 고통이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증오하던 곳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진 고통이었다. 그것은 덜 용서하며 덜 의로웠던 인간들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고통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이다.¹⁴⁵⁾

이런 점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⁶⁾ 요더는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열거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0-21)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33)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요 15:20-21)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벧전 4:13)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41) Palmer Becker,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김복기, 김경중 역,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27.

142) 위의 책, 27.

143) Stuart Murray,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29.

144) 위의 책, 229.

145) J. H. Yoder, *He Came Preaching peace*, 조의완 역, 『선포된 평화-예수의 평화설교』 (대전: 대장간, 2012), 15-16.

146) 위의 책, 223.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11)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아나뱃티즘이 한국교회 신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아나뱃티즘과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아나뱃티스트들의 신학적 토대인 기독교론, 교회론, 종말론을 알아보았다. 또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반평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따르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아나뱃티즘은 철저히 예수따라 살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구현되는 하나님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거나 단순히 인간 내면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철저히 사랑과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나뱃티즘과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철저히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므로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원서

- Carter, Craig A. *The Politics of the Cross: The Theology and Social Ethics of John Howard Yoder*.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1.
- Cartwright, Michael G. "Radical Reform, Radical Catholicity: John Howard Yoder's a Vision of Faithful Church," in John Howard Yoder, *The Royal Priesthood*.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Culliton, Joseph T. C.S.B. ed. *Non-violence-Central to Christian Spirituality: Perspectives from Scripture to the Present*. Lewiston,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82.
- Hallahan, Kenneth P. *The Social Ethics of Nonresistance: The Writings of Mennonite Theologian John Howard Yoder. Analyzed from a Roman Catholic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Catholic of America, 1997.
- Hauerwas Stanley et al. ed. *The Wisdom of The Cros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LeMasters, Philip. *The Import of Escatology in John Howard Yoder's Critique of Constantinianism*. San Fransisco: Mellen Research University Press, 1992.
- McClendon, James Wm. *Ethics: Systematic Theology*, Vol. I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 Marshall, Chris.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5.
- Park, Joon-sik. *The Church as Ethical Reality: A Critical Synthesis of H. Richard Niebuhr and John Howard Yoder*.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1.
- Russell, David. *A Theological Critique of the Christian Pacifist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sition of John Howard Yoder*. University of Cape Town, 1984.
- Shin, Won Ha. *Two Models of Social Transformati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logical Ethics of John Howard Yoder and Richard J. Mouw*. Boston University, 1997.
- Wogaman, J. Philip. *A Christian Method of Moral Judgement*. London: SCM Press Ltd. 1976.
- Yoder, J. H. "A People in the World: Theological Interpretation," James Leo Garrett, Jr. ed. *The Concept of the Believer's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69.

- Yoder, J. H. *Karl Barth and the Problem of War*. 124-125; cited in Philip LeMasters. *The Import of Eschatology in John Howard Yoder's Critique of Constantinianism*.
- Yoder, J. H. "Otherness of the Church," 295; Robert Mereman Parham. III. *An Ethical Analysis of The Christian Social Strategies in The Writings of John C. Bennett, Jacques Ellul and John Howard Yoder*.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1984.
- Yoder, J. H.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Yoder, J. H.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Scottdale: Herald Press, 1998.

번역서

- Ellul, J.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자크엘룰번역위원회 역. 『뒤틀려진 기독교』. 대전: 대장간, 1994.
- Herold Bender. *The Anabaptist Vision*. 김복기 역. 서울: KAP, 2008.
- Murray, Stuart.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Anabaptist Tradition*. 문선주 역. 『아나뱃티스트 성서해석학』. 대전: 대장간, 2013.
- Murray, Stuart. *The Naked Anabaptist- The Bare Essentials of a Radical Faith*. 강현아 역.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대전: 대장간, 2011.
- Ross, John D. ed. *Defanging the Beast: Mennonite Responses to John Howard Yoder's Sexual Abuse*. 김복기 역.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 대전: 대장간, 2019.
- Yoder, J. H. *He Came Preaching peace*. 조의완 역. 『선포된 평화-예수의 평화설교』. 대전: 대장간, 2012.
- Yoder, J. H. *Nonviolence, A Brief History*. 채충원 역. 『비폭력 평화주의의 역사』. 대전: 대장간, 2015.
- Yoder, J. H. *Revolutionary Christian Citizenship*. 최태선. 임요한 역. 『혁명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대전: 대장간. 2017.
- Yoder, J. H.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김기현 역.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증언』. 대전: 대장간, 2012.
- Yoder, J. H. *The Original Revolution*. 김기현, 전남식 역. 『근원적 혁명』. 대전: 대장간, 2011.
- Yoder, J. H.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 정원범. 『신학적 윤리와 현실』. 서울: 쿰란출판사, 2004.
- 『평화운동과 평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9.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편.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 (2007)

세계 예수공동체의 영성과 삶

섬은주 목사
(하늘샘-좋은 나무 공동체, 샬롬가정교육문화원 원장)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예수공동체들의 영성과 삶을 통해 성숙한 신앙공동체의 참 모습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세계 예수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 화해와 일치의 산 누룩 (프랑스 페제 공동체와 영성)
- * 천국의 향취가 깃든 공동체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 * 살아있는 진리의 오두막 (스위스의 L'Abri 라브리)
- * 참된 경건의 모범 (헤른후트와 모라비안 공동체)
- *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 (독일 베체헬, 쉐네빈트 공동체, 디아코니아 그룹들)
- * 관상적 삶과 기도의 공동체(스위스 그랑상 공동체)
- * 창조세계와 생명체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의 공동체-(독일의 그나덴탈 공동체)
- * 은총과 순종의 공동체 (독일 Christusbuderschaft -그리스도 형제회)
- *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 (독일 Christusträger Bruderschaft Kloster)
- * 평화, 제자도, 공동체의 산실 (메노나이트)
- * 초대교회의 원형에 충실한 공동체 (브루더 호프 공동체)
- * 사랑과 치유의 동지 (영국 포스트 그린 공동체)
- * 이 시대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연대
- *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럽의 수도원의 정원 소개

신실한 예수공동체들의 삶과 특성

1. 주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존재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언약적 관계로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세우셨으므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성과 모델을 따라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주도권을 갖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유케 하시며, 화해시키고, 이들이 서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공동체의 주되신 하나님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특성과 성품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신다. 이는 인간창조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는공동체

- 공동체는 무소부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와 사물들을

분별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입각해서 대우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실체이다. 신실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룹의 친밀한 경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 사이에 역동적인 연관성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 중심체로 경험할 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관계는 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한 그룹원이 구성원의 중심이 된다면, 혹은 인간적 제도가 중심이 되거나 혹은 어떤 피조물이 그 중심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위험하다. 초점을 잃은 지도력은 이상승배로 빠지게 된다.

3. 창조성과 신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공동체

-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윤곽이 잡혀진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갖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져야 할 관계와 대화들로 그 윤곽이 잡혀야 한다. 공허함, 사소함, 피상성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다룬다. 공동체에서는 진부한 대화보다는 창조적이며 고백적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허비하거나 남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행동과 언어는 특별하고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세상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찰하고 공개적이며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4. 홀로, 조용한 가운데, 혹은 공동체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공동체

- 신실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서 살롬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공간,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할 수 있는 공간,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 식구들 사이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유래된다. 공동체가 개인적 나눔과 성경공부, 그리고 특별한 기도훈련을 포함한 여러 모임을 계획할 때 안식과 살롬의 의미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사랑과 자비로운 행위를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히 10:25) “함께하라”는 부름은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말할 때 쓰여졌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간관계를 훈련한다는 사실이다.

5.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으로서 서로 품위와 존중과 경의로 대하는 공동체

- 신실한 공동체는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하나님 백성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의 연역함과 복잡함, 그리고 서로의 연관성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게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 받

아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보물이다. 그러기에 구성원 각 사람을 존중하며 품위있게 대해야 한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성숙하고 온전하며 제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 구성원들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구성원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들의 인간됨에 있는 것이다. 공동체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따라 좋은 것은 모두 함께 나누는 가족의 비전을 실행해야 한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듯이 구성원 각자가 형제요, 자매로 존중받아야 한다. 공동체내에서 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것은 창조세계의 살롬을 유지하고 삶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6. 갈등과 분노를 다루는 과정에서 화해와 용서를 나누는 공동체

- 신실한 공동체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용서이다. 용서는 화해의 축이자 견고한 유대를 맺게 해주는 행동이다. 공동체내에서 우정이 유지되려면 악의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성향을 다스려야 한다. 용서는 화해와 생명을 낳는 반면, 복수는 분열과 죽음을 낳는다. 분노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건강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건강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고백, 용서, 회개를 실천하는 영적 훈련이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 숨겨진 분노는 공동체를 교묘하게 파괴한다. 오직 공포와 분노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만이 건전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7.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건전한 대인관계를 함양하는 공동체

- 성과 영성은 공동체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 3:7-8에서 성적인 고립은 즉시 영적인 고립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도 숨게 된다. 성에 대한 회피와 남용은 영적고립으로 인한 결과이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공동체의 건전한 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남성이나 여성의 구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위한 안식의 공간을 계획하고 이성을 숭배하거나 지배하려는 욕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공동체내에서 언약에 대한 헌신과 언약적 지도력과 나눔을 신중하게 실천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성인 인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룬다는 사실은 서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바르게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공동체내에서는 성적인 순결함이라는 목표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신실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서로의 시간을 공간을 나누어야 한다. -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는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자신들의 인간성을 전부 공동체로 가져온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그들이 가진 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재능과 경력의 좋은 점을 나누려면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공간과 시간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자신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도적질하는 것은 공동체의 근본적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건강하고 성숙된 공동체는 각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다. 성숙한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은혜롭고 융통

성있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9.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향하여 진실되게, 사랑으로 비밀을 보장하며 정직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진실성과 개방성, 비밀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에 처하게 되며 결국 해체되고 만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약의 명령은 관계의 성실성, 약속준수, 진실의 발언을 의미한다. 진실의 결여는 인간성과 관계를 파괴한다. 공동체는 오직 진실 가운데서 성장한다. 공동체는 상호신뢰하는 능력이 자라나야만 강해질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약점이 받아들여질 때, 공동체안에는 신뢰가 넘쳐난다.

공동체안에서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훈련과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붕괴는 진실과 친밀함의 오묘한 결합없이 공동체를 운영할 때 일어난다. 진실과 사랑과 공의는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10. 모든 구성원들의 은사와 그것을 나누기 위한 모든 대인관계, 공흠의 봉사, 나아가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

- 공동체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함께 하는 삶”은 더욱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동체는 깨어진 세상에서 “약하고 변변찮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나눔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열려야 한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예배와 의로움과 공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고 의로움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며 공흠은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향한 바른 임무이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받은 모든 은혜와 선함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공동체내에서 서로를 향한 봉사를 통해 신뢰감을 갖게 되며 구성원들은 더욱 넓은 세계에서 자신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부르실 때 공동체는 구원받는 것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배워가면서 더욱 넓은 세상과 제사장으로 누리는 풍요를 나누라고 요청하신다.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탐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의 삶을 나눌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발견할 것이며 함께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진실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 쌓여 있지 않고 목마른 인류를 향해 넘쳐흐를 때, 오히려 나눔을 통해 충만해질 것이다.

◎ 신앙공동체로서의 소명

1. 거룩함과 하나됨

- 세상을 닮아가려 할 때 하나됨이 깨어진다.
- 하나되지 못할 때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되고 만다. 화해와 하나됨을 경험

하는 모임이 갈등과 분열을 겪는 세상과 구별된다.

2. 하나됨과 선교

- 하나되지 못할 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된 모임에 사람들은 찾아온다.

- 함께 향하는 선교의 비전이 없을 때 하나됨은 깨어진다. 선교에 꿈과 열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함께 움직인다.

3. 선교와 거룩함

-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을 때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없다.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때 사람들을 변화되게 할 수 있다.

- 다른 이들을 환영하는 선교가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일 뿐이다. 진정한 거룩함(구별됨)은 배타적인 데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환영하는데 있다.

Christian Community and the Reconciling Process in Community Life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생활에서의 화해과정

Chris Rice 크리스 라이스
(동북아 Mennonite Central Committee)

I want to talk about two conflicts I experienced in Christian community, and what I learned from these conflicts about the reconciling process in Christian community. Both conflicts took place during the years Donna and I lived in the U.S., in the state of Mississippi. Mississippi is America's stronghold of racism. We were part of a Christian community there called Voice of Calvary (VOC). VOC was located in the city of Jackson, the capital city of Mississippi. VOC was both a church and a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ministry. We were located in a poor area of Jackson that suffered from high crime, high family breakdown. But also a community of many gifts. VOC was about 200 people, both black and white. We all lived in the same neighborhood, within walking distance of each other. We all worshipped together. We all worked together in many different ministries of VOC.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두 가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겪은 뒤, 이 두 갈등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갈등들 모두, 도나(저의 아내)와 제가 미국 미시시피 주에 사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미시시피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의 본거지라고 불릴 정도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의 소리(Voice of Calvary)'라고 불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갈보리의 소리는 미시시피 주의 수도인 잭슨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이자 기독교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잭슨 시에서도 높은 범죄율과 높은 이혼율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갈보리의 소리에는 약 200 여명이 있었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모두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했고 갈보리의 소리가 운영하는 많은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함께 했습니다.

For 30 years, VOC may have been the most racially integrated community in the U.S. But it was not easy to stay together. This is because Christian community is not a romantic train ride. It is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t the heart of that journey is seeking to be a community of reconciliation. Two conflicts deeply tested us and shaped us. Each conflict called us to make a major paradigm shift.

30년 동안, 갈보리의 소리는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잘 통합된 공동체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공동체라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기차여행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화해의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갈등은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시험했고, 우리를 빚어 갔습니다. 각 갈등은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로 불렀습니다.

The First Conflict: A Racial Crisis

첫 번째 갈등: 인종문제 위기

The first conflicted occurred in 1983 when a racial crisis almost split the church. I had only been in Mississippi for 2 years. I had come to VOC as a college student for six months. But I was completely captivated by life in interracial Christian community. I saw myself as living the solution to racism and poverty in America.

첫 번째 갈등은 인종문제로 교회가 거의 쪼개질 판이던 1983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겨우 2년 정도 미시시피에서 지냈던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6개월정도 대학생으로서 갈보리의 소리에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종이 함께 모인 기독 공동체의 삶에 완전히 매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제 자신을 미국의 인종문제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But African Americans in our church began to speak out. They said racism was not outside our Christian community, but inside as well. They organized a series of meetings they called the "Reconciliation Meetings." But the meetings were very confrontational and very emotional.

그러나 우리 교회의 아프리카인 어메리칸 즉 흑인친구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주의는 우리 공동체 바깥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그들은 "화해모임"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매우 대립적이며 감정적인 모임이었습니다.

The black people in our church said that whites were mostly in control. They said that if we left everything "as is," whites would end up running everything. More deeply, they said this was the result of trajectories of America's original sin of racism which were not outside our community life, but right inside. This was knowledge I resisted. It challenged my identity of goodness and innocence. I remember walking home after one meeting with my soul deeply troubled. I didn't come to Mississippi to hear what was wrong with me. I came to be part of the solution.

우리 교회의 흑인들은 백인들이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둔다면 백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것이 미국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인종 차별 죄의 궤적이 보여 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종 차별은 우리 사회생활의 바깥이 아니라 바로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한 나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런 마음으로 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저는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으러 미시시피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Before that crisis I saw myself as being part of the solution to reconciliation, on the side of goodness. But through a painful journey of discovery, I came to see that the African-Americans in our church were right: at the end of the day it was optional for me as a white person to deal with race. I could move to an all-white world, to an affluent all-white church, get distance from black folks, and I would not have to deal with race. I came to see that my black brothers and sisters did not have that option, and I came to understand my situation to be the power of white privilege. Part of that privilege was living with blinders. Like the blinders on a horse. My privilege directed me only toward the reality I saw while I remained unaware of and unbothered by the reality I did not see. White people didn't have to *do* anything to be caught up in this blindness - it was a kind of captivity.

이런 위기가 있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을 좋은 편에 있는, 화해를 위한 해결자로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백인으로써 인종문제를 다루는 것은 선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인의 세상으로, 부유한 백인의 교회로 갈 수 있었고, 흑인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고, 나는 인종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흑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해결책이라는 것이 고작 백인들의 특권에서 나오는 파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권의 일부가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한 말처럼 내 특권은 내가 보지 못한 현실을 인지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은 채로 내가 보았던 현실만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백인들은 이 눈가리개 안에 갇히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된 삶과 같은 것입니다.

The First Paradigm Shift and What We Learned About the Reconciling Process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와 화해과정에 대해 배운 내용

We learned many things from this conflict about the reconciling process in Christian community.

우리는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기독교공동체의 화해과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First, we learned that the reconciling process requires lament. God's gift of lament calls us away from simple and shallow solutions. Lament calls us to see, name, feel, and stand in the brokenness. American's original sin of

racism had poisoned our community. Christian community cannot be separated from social tensions and social oppression in the society around us. The truth of trauma, oppression, and privilege had to be seen, named, and taken head on in order to get beyond them.

첫 번째로, 화해과정은 애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애도는 우리로 하여금 간단하고 얇은 해결책에 머물지 않게 해 줍니다. 애도는 우리가 그 깨어진 곳을 보고, 명명하고 느끼고 거기에 서있도록 합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의 원죄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라도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과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의 진실, 억압 그리고 특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보여져야 했고, 명명되어져야 했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The second thing we learned about the reconciling process is the challenge of holding together truth and love. Here is what we learned: Love without truth is a lie. We cannot be a community of reconciliation without facing the truth of our sin and what divides and deforms us. But we also learned this: Truth without love kills. Many of the Reconciliation Meetings were filled with bitterness and anger. Love without truth is a lie. But truth without love kills. Holding truth and love faithfully together is crucial.

화해과정에 대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과 사랑을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면하지 않고, 우리를 갈라놓고 망가지게 하는 것을 대면하지 않는 화해의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없는 진실은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화해모임은 괴로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이 거짓이라면 사랑이 없는 진실은 죽이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을 신실하게 결합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The third thing we learned was that at the heart of reconciliation in Christian community is dying. It was very painful to face what we needed to face. But in the end, we came to understand that addressing conflict faithfully is a journey toward holiness. A journey toward becoming more like Christ. For me personally, I came to believe in racial reconciliation because it's the best way I know of for a white American male to die to

self. I was willing to be in Mississippi to be the solution. But was I willing to stay to be transformed? I needed to die to some things to be raised into new life. All of us needed to die in order for a new corporate life to begin.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기독교공동체 화해의 핵심에는 죽음(자기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대면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신실하게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기록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종적 화해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아는 백인 미국 남성이 스스로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 기꺼이 미시시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위해 뭔가에 대해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단합의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We learned that reconciliation requires a spirituality of loss. The reconciling process requires a paradigm shift. It requires shifting our imagination from *saving* to *being saved*. What are we prepared to lose to gain the reconciled community of peace? In order for a new chapter of community growth to begin at VOC, whites had to learn to see and confess our racism and our privilege. And blacks had to learn to let go of their unforgiveness. The reconciling process is messy. Most of us stayed, but some left. But we who stayed decided to be with each other in our places of pain. We made institutional changes to address disparities. And somehow we were born again, again.

우리는 화해는 상실의 영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화해의 과정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구원하기에서 구원받기로 우리의 상상력을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화해하는 공동체를 얻기 위하여 잃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갈보리의 소리에서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인들은 우리의 인종차별주의와 특권을 보고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자신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화해의 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머물렀지만 다른 사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머물기로 한 우리들은 그 고통의 장소에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The Second Conflict: From a Race Crisis to a Grace Crisis

두 번째 갈등: 인종의 위기에서 은혜의 위기로

On the other side of conflict great joy and great fruit can come. What we lost did not compare to what we gained. Those who remained had developed a deep bond of trust. A small group of us in the church, both whites and blacks, began a small group Bible study together. We studied the Sermon on the Mount together. Then we studied the book of Acts together and its focus on community. We told our life stories to each other. We came to care for each other deeply. And eventually we felt called to begin a deeper form of Christian community. After two years as a small group, we bought a property with two houses, and moved into the houses together, both families and singles. There were about 15 of us. We called ourselves the Antioch community. We ate our meals together, we shared our income, we joined in hospitality, we dedicated ourselves to daily bible study and prayer.

갈등의 다른 면에는 큰 기쁨과 열매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우리가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 있게 된 사람들은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하는 소그룹은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였고 공동체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돌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기독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소그룹으로서 2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2개의 집을 사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집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족이나 싱글이나 다 함께 거기에는 약 15명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디옥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같이 하고, 수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님을 대접하고 함께 매일의 말씀읽기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In the Antioch Community I became very close friends with an African American named Spencer Perkins. We became so close we called each other "yokefellows." Spencer and I began a national racial reconciliation ministry. We wrote a book called "More Than Equals" which gained national attention. We traveled the country teaching about raci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안디옥 공동체에서 나는 스펜서 퍼킨스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인 어메리칸과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서로를 “단짝”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펜서와 나는 국가의 인종 화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등 그 이상”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미를 다니며 인종의 정의와 화해에 대하여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The Antioch Community stayed together for 12 years. But in the fall of 1997 came the second crisis. At that time, Spencer and I were organizing a major conference in Jackson on colleges and reconciliation, with several hundred people coming.

안디옥 공동체는 12 년동안 함께 살며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 년 가을에,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그 때에 스펜서와 저는 잭슨에서 대학과 화해를 주제로 한 수백 명이 참가하는 주요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Spencer and I were traveling the nation preaching about racial reconciliation. But at home we couldn't stand each other. Our feelings toward each other had become very bad. Our lists had become so long: "You did *this* to me." "Well you did *that* to me." "Well that's because you did *this* to me."

스펜서와 저는 인종 간의 화해에 대하여 설교하며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아주 길어졌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음,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글쎄, 그건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Our Antioch Community was also in crisis. Antioch was so busy doing so many good things. But the joy was gone. We were exhausted.

우리의 안디옥 공동체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지쳐 갔습니다.

The conference was coming in 3 months. And Spencer and I were at the verge of splitting up. Our theology honed over 17 years of intense ministry didn't prepare us for this. Our spirituality had become a spirituality of trying harder and doing more. And that was NOT good news. The yokefellows were about to divorce.

그 컨퍼런스는 이제 3개월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스펜서와 나는 갈라서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17년 간의 집중적인 사역을 이끌었던 신학은 우리로 이런 상황을 준비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저 더 열심히,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짝은 거의 갈라설 지경이었습니다.

We tried to be good Christian boys. We invited two mentors from the outside to come in. Their names were John and Judy Alexander, from a church in San Francisco. But we had no hope. Donna and I decided we were ready to leave the community. We had no more will to go on.

우리는 좋은 기독교 청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바깥에서 두 멘토를 데어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존, 주디 알렉산더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나(저의 아내)와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John and Judy spent several days with Antioch. They talked to Spencer, to me, to the community. After a couple days they gathered us. John had a diagnosis of our problem. John said, "What does the Bible talk about more? Loving God or loving your neighbor?" I thought it was a trick question. How do you separate the two, loving God, loving neighbor?

존과 주디는 안디옥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스펜서와 저와 공동체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 그들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존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 나는 이것은 떠보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사랑하기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단 말인가?

John said, "I actually went through the Bible and counted all the verses about loving God and there are many. And I counted all the verses about loving neighbor, and there are many."

존은 "나는 실제로 성경을 쭉 읽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모두 셧었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모두 세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았습니다."

But John had come to a surprising conclusion. He discovered there are far more stories in the bible about *God's love for us*. John said "The biggest story in the Bible is not about our love for God. It is not about our love for each other. The biggest story is about God's love for us. If you don't get that bigger story about God's love into your bones, you are going to be very dangerous activists. Becaus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is community is not Spencer. Not Chris. Not any of you. Not anyone in the organization or neighborhood.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is community is Jesus. And if you don't start learning how to keep Jesus at the center of your life and work you might as well quit now.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urvive."

그러나 존은 매우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것도,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이야기가 여러분의 뼈 속까지 사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펜서도, 크리스도, 여러분 중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자리에 모시는 일을 배우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일을 지금 그만 둘 것입니다. 당신은 견디지 못 할 것입니다."

But Spencer and me, we were stubborn. Forgiveness just didn't seem ... *fair*. But all John and Judy kept talking about was grace, grace, grace.

그러나 스펜서와 저, 둘 다 우리는 완고했습니다. 용서는 그냥 ... 온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존과 주디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은혜, 은혜, 은혜였습니다.

I met with John. He said "Maybe you need to stay. Simply as a step of faith. And trust God to provide a miracle." I did not like that. John and Judy were about to leave. They called a final meeting. I expected Spencer to be angry.

저는 존과 만났습니다. 그는 "아마 당신은 머물러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존과 주디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을 소집했다. 나는 스펜서가 매우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But somehow, grace had worked its way into our bones. I walked into the decisive meeting. And Spencer opened his mouth. I couldn't believe what he said: "If Chris and Donna want to leave, I want to support that. I want to give them the grace to go." And I told them what we had already decided to stay. Somehow Spencer found the grace to release me and allow me and Donna to leave. Somehow we found the grace to stay. We stayed. And we made a new beginning.

그러나 은혜가 우리 뼈 속으로 스며들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펜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크리스와 도나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미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스펜서는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나와 도나가 떠날 것을 허락하는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머물게 하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The big conference happened. 300 people came to Jackson. But on the last day, during the morning session, Spencer collapsed. He was rushed to the hospital. I called him. "We're supposed to speak tonight. What do we do?" ... "Let's go for it," he said. "I'm ready." That night Spencer testified to the power of pursuing justice melded with the power of the culture of grace as a new way of Christian witness.

그 큰 컨퍼런스는 개최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잭슨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침 시간에 스펜서는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병원으로 급하게 데리고 갔고 나는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강연하기로 되어 있잖아. 우리 무엇을 할까?"... "힘내자, 나는 준비됐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스펜서는 기독교 증언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은혜의 문화의 힘이 결합된 정의를 추구하는 능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Three days later, at age 44, Spencer died suddenly of a heart attack. God had taken him to the mountaintop. God gave him a glimpse of beauty, of the promised land - the culture of grace. He came down to tell what the

view looked like. And then he was gone.

그리고 3일 뒤에, 44세의 나이로 스펜서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은혜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광경이 어떠했는지 말해 주러 내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The Second Paradigm Shift and What We Learned About the Reconciling Process

두 번째 근본적인 변화와 화해과정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

Reconciliation is as big as the race challenge in America. It is as big as the ga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ut what Spencer and I learned is this: Reconciliation is never bigger than the person nearest to you who is most difficult to love. If we don't live a life of peace with those who are nearest to us every day, what message of peace do we have to offer this world?

화해는 미국에서 인종문제의 도전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펜서와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화해는 사랑하기 가장 힘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할까요?

We all know the Good Samaritan story in Luke 10. The story Jesus told to the lawyer who asked, "Who is my neighbor?" It's a story about allowing our lives to be interrupted by injustice. About going out of our way for the abandoned stranger. About being willing to interrupt social divides. It's a story about radical justice. "Go and do likewise" commands Jesus. We can't know Jesus without a spirituality of extravagant justice. For me and Spencer, the Good Samaritan story was at the core of our teaching and preaching and identity. But after Spencer died I discovered something I'd never seen.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불의에 의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낯선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적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정의의 영성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스펜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가르침과 설교와 정체성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펜서가 죽은 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 discovered that the Good Samaritan is not the end of Luke's story. Immediately after his encounter with the lawyer, Jesus goes to Bethany to rest and celebrate at the home of the sisters Martha and Mary. Martha's busy in the kitchen, so occupied, so much about trying harder and doing more. Meanwhile Mary i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wasting time listening to the Lord. Martha protests. "There's so much to be done!" Jesus' response is quite unfair.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but only one thing is needful.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Luke10:38-42).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율법학자와의 만남 직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쉬며 명절을 보내시러 베다니아에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며,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일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좀 공평하지 못한 듯합니다. “너는 너무 많은 근심과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 일만 필요할 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누가복음 10:38-42)

The Psalmist did not say “Be BUSY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We easily become a mile wide in frantic activity and an inch deep in clarity, peacefulness, and effectiveness. It can be disturbing to be still and let God be God. We may see at what cost we have ignored the people closest to us, even our own soul. Even the Lord. The alternative is to be still, to listen, and to internalize the voice that Jesus heard in the waters as he was baptized by John: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Jesus' ministry hadn't even started. He was beloved without DOING anything.

시편기자는 “바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활동에는 쉽게 마음을 내주면서도 명확성, 평온함, 효과성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 삶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함으로, 심지어는 내 영혼을 무시함으로 혹은 주님을 무시함으로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대안은 잠잠히 있으며, 귀를 기울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며 물 속에서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나 사랑받으셨습니다.

Bethany is a story of radical devotion. Extravagant justice cannot be separated from extravagant devotion. We are not the Lord. We are Ministers, not Messiahs. Extravagant devotion is just as radical as doing justice. t as much a discipline. Just as much a test of obedience. And it carries just as much transformational power.

베다니는 급진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인 정의는 열정적인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역자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정의를 행하는 일만큼이나 급진적입니다. 그것은 훈련만큼이나 혹은 순종의 시험만큼이나 급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A new reality demolished our lists, and the interruption shook our life at Antioch to the core. We decided to replace a culture of demands with a culture of grace. A culture of grace: Driven each day not by trying harder and doing more but driven by joy and gratitude for what God has done for us, and allowing God to do the same to others through us. Spencer said it felt like going back to kindergarten—learning a new language and new practices. For us, "telling the truth" had come to mean telling the church and each other how *they* needed to change. But now we saw that the greatest truth was telling and showing each other how much God loves us. Our paradigm for daily life had shifted to John's mantra: "Caring for each other, forgiving each other, and keeping the dishes washed. We are forgiven. All the rest is details."

새로운 실재는 우리의 불만들을 허물었고, 개입은 안디옥에서 우리의 삶을 그 중심까지 흔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문화를 은혜의 문화로 대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의 문화: 매일의 삶이 ‘더 열심히, 더 많이’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의해 이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 드렸습니다. 스펜서는 우리가 다시 유치원에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행동양식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교회와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진실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하고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은 요한의 만트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용서하십시오. 계속 설거지를 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세부사항입니다.”

Addressing conflict faithfully and embracing God's grace does not leave us standing where we are. In the first crisis, our church nearly split over racism. The first breakthrough taught us about the power of the social division which we needed to be liberated from. The second breakthrough 12 years later was about the power of God's love. For the most important truth in the world is not our trying harder to love God or others, but God's acts of love for us. Both were necessary; both altered people at their very core.

신실하게 갈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껴안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 우리 교회는 인종차별로 거의 쪼개질 뻔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파를 통해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분리의 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12년 뒤의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양쪽 모두 필요합니다. 양쪽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And here is the truth about God which makes Christian community possible: grace not only takes time but *gives us time* to pursue reconciliation.

그리고 기독교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공동체)운동

- 밝은누리를 일구며... -

최철호

(밝은누리 <http://welifa.org>)

1. 고백과 첫 부르심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은 성령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과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총체적 해방과 구원사건입니다. 이는 성령사건으로 거듭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 사는 삶(한몸살이=교회공동체)을 통해 구현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는 증언됩니다. 성령은 더불어 사는 지체들,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며 은총입니다.

성서는 결코 세상 정사와 권세, 시대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과 내면은 시대우상에 익숙하게 길들여졌습니다. 시대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고 능력이라 유혹합니다. 겸하여 섬기려는 욕망을 서로 추동하고 합리화 하지 않게 늘 깨어 성찰하고, 서로 비추고 도우며 하나님 형상을 닮아 갈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한국교회와 거래역사가 처한 아픔으로 고뇌하고 애통하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과 현실 교회의 큰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현실을 지배하는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는 것인가? 돈, 소비, 권력, 제국, 학벌, 부동산, 분단이데올로기 등 우리시대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실제 일상 삶에서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삶이 곧 우리 삶이 아닌가! '일상 삶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 종교인! 집단 최면적 우상숭배..!'

성서를 '실패자들의 이상'을 기록한 것이라 치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 하고 있나 하는 행위의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하는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나라는 왜곡된 세상에 충격을 일으키며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내가 너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렘1:10)

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

현재 한국사회는 지난 100여 년간 중첩된 역사와 문명 모순이 집약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역사 이면에 은폐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와 문명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드러납니다. 일제와 분단, 전쟁, 냉전을 거치며 주체적으로 성찰할 겨를 없이 달려 온 역사였기에 서구화, 기독교화, 산업화, 도시화로 대변되는 근현대사 모순이 중층적으로 드러나는 위기입니

다.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역사에 담긴 상처는 기만을 일상화하고 기회주의 처신을 주요한 사회생활 지혜로 둔갑시켰습니다. 뿌리 깊은 사대주의 문화와 분단의식은 정상적인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체성과 창조성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 원천인 하늘땅살이(농사)와 살림을 업신여기고, 생명을 기르는 땅을 온통 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훼손했습니다. 후손 대대로 더불어 누려야 할 생태계를 특정 이해집단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너무도 조급하게 파괴해 버리는 현실입니다. 교육과 직장 현장 등 사회 곳곳에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후 한 명까지도 이겨야 할 경쟁자로 대상화 해 소외시킵니다. 과도한 무한경쟁에서의 성패가 진정한 자기실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더 깊은 고독과 소외에 빠져들게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삽니다. 깨닫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내몰리는 지경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역사와 문명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시대 생존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정도로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근대화 자체가 기독교화와 맞물린 채 전개된 것이기에, 한국교회는 근대화 총체적 모순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겸손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시대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뿐 아니라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생명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권력과 부, 기만의 대명사가 되어 비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깊은 회개와 참된 성찰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용서하고 새로운 소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사회 개혁과 교회 갱신을 위해 무수한 말, 이론이 제안되고 있으나 공허한 울림입니다.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은 멋스럽고 세련된 말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삶과 괴리된 상품화 된 신학,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삶과 사건을 해석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수입 학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고 배우고 고백한 바대로 정직하고 우직하게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 능력으로 우리시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작지만 정직하게 구현해 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서는 세상 정사와 권세가 조장하고 지배하는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권면합니다.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는 ‘회심한 하나님 백성(교회)’의 구별된 삶을 통해 수행된다고 가르칩니다.

시대우상은 우리 욕망을 조작하며 지배합니다. 이러한 우상 작동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새로운 욕망을 생성해 내는 관계(한몸살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을 젊을 때 잠시 하고 곧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한몸살이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함께 체험하는 ‘은총을 구현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강제하는 삶을 거스르고,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공동체) 운동은 한 시대와 문명이 생명력을 다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주는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교권 체계가 지닌 위기를 깨우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영감을 담고 나타냅니다. 동일한 패러다임 내

에서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과제지만, 전환시대 과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즉 ‘현실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전환시대는 ‘학습과잉, 사유빈곤, 생명핍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중요합니다. 기존 개념과 사고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사건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미약한 듯이 보이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며 새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나라는 기존 사고 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이 강제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나라는 관습적 사고와 정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가능성과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거대 조직화되고 세속화된 틀로는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나라 제자도’, 세속적 가치질서를 거스르는 새로운 생활양식 등이 보다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사건에 보다 민감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나라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역량(규모/자본력/권력 등)에 상관없이 기존 가치질서에 강력한 위협이 되는 힘이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명을 잉태해 내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수도자가 지닌 영성과 혁명가가 지닌 역사의식을 동시에 품고 생활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가르침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온갖 타협과 자기 합리화 욕망을 내려놓고.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사건을 통해 생성된 한몸살이(공동체)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은사와 물질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모두 핍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세상 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양식, 관계를 창출하며 하나님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때에 맞게 다양한 시대 교회개혁 운동에 중요한 영감을 일으키며 계승되었습니다. 세속화되고 국가 종교화된 교회를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교회로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많은 핍박과 세속화 유혹을 뚫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구현하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 곳곳에서 세상 정사와 권세가 강제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 하나님나라, 살아있는 현실!

하나님나라는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의 우직한 삶과 사랑을 통해 세상 한 가운데서 증언되고 전진합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나라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자기 삶에서 항상 유보합니다. 성서는 실패한 자들의 이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서는 세상 한 가운데서 구현된 하나님나라 사건을 증언한 책입니다. 하나님나라는 성서 증언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 언제나 살아있는 현실이며 약속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증언합니다. 정직하게 약속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은총을 구하며...

4. 생명 = 더불어 사는 삶 = 생명평화

생명生命은 명命 받아 사는生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흠과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몸이고, 흠을 떠나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 근원에 가까울수록 건강합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을 따릅니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

然)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생명 속에서 하늘땅과 어울려 사는 생명입니다. 더불어 사는 온생명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다른 생명들과 관계를 넉넉하게 누리는 만큼 생명력이 고양됩니다. 그 속에 한 몸 되어 사는 신비가 있습니다. 폐쇄와 경직, 획일성은 살아있는 관계성과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과 더불어 있을 때 생명입니다. 또한 몸담고 있는 사회역사, 고난 현실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나라는 창조된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이 서로 평화를 누리는 사건을 통해 세상 한 가운데서 증언됩니다.

5. 성령은사로 한 몸 된 삶

성서는 한 사람이 지닌 지고한 도덕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는 사람이 지닌 능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과오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자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은사와 소명을 공유하는 한몸살이를 통해 하나님나라는 전진합니다.

한몸살이에서 하나님 주권은 서로 주체가 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통해 구현됩니다. 특정한 은사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이 은사와 소명에 따라 서로 책임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갖추고 존중합니다. 성령을 통한 주체적 상호목회입니다. 지체들이 성령 은사와 소명에 따라 함께 주체가 될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주권적 다스림이 구현됩니다. 은사는 성령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한 몸 된 지체들 상호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 운동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비록 교회개혁 후손들조차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게 현실이지만, 한 몸 된 관계 속에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참되게 믿는다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교회는 성령은사를 공유하며 한 몸 된 관계입니다. 은사는 부르심(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공동체 관계, 삶에서 구현되고 검증됩니다. 은사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은사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다른 은사와 비교하여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공동체가 생존해 가는 과정에는 특정한 은사가 주요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와 정황에 따라 유력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다양하게 변합니다. 인정욕망에 강하게 사로잡혀 마음이 조급해지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특정한 시기에 유력하게 드러나는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에 빠집니다. 거룩한 외형으로 은폐된 채 표현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한몸살이 전체가 함께 속기 쉽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정황과 때에 따라 가장 유익한 은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늘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지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사를 공유하는 하나님나라 백성이 사는 삶입니다.

6. 한몸살이 지도력, 은사와 상호목회

은사에 대한 이해는 곧 한몸살이 지도력 문제와 관련됩니다. 한몸살이에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고 다양한 사역이 생성됩니다. 각 은사는 한몸살이 내에서 가치 우열 없이 동일한 가치와 위상을 갖습니다. 때와 정황에 따른 역할 구분만 있습니다. 서로가 지닌 은사를 존중하며 한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은사를 공유하며 한 몸 되는 원

리에 따릅니다. 제도와 형식을 최소화 하고 방편적으로 설정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자유로운 역사에 민감히 순종하며 자애와 역동이 넘치는 한몸살이입니다.

한몸살이 초기 생성과정을 이끌고, 소명을 향해 전환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로 초기 생성과정에서 확인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얻습니다. 한몸살이가 안정적인 살림 과정에 있을 때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가 전환기에 그 때를 분별하고 전환을 추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존재이유와 가치를 담지한 채, 미래전망을 수립할 때 주요하게 드러납니다.

의미 있는 역사 사건으로 생성되는 모든 조직이나 집단은 이런 지도력과 함께 생성됩니다. 신앙공동체 뿐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 변혁운동 조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에 무지하거나 경직된 관념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경직된 관념으로 다루면 이런 현상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대 실체적 개인주의에 토대한 민주성이라는 관념에 종속된 자세입니다. 성령 역동성을 통해 생성되는 관계 특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세계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다양한 은사에 따라 지도력이 분화 발전하여 상호지도력을 체현해 가는 것입니다.

한몸살이가 살림과 성숙 과정을 안정되게 수행할 때 다양한 은사가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검증됩니다.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을 통해 한몸살이에 주신 부르심을 구현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이 시기에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력이 생성되지 못하면 한몸살이는 위기를 맞습니다. 생성 초기 역동성과 창발성이 상실되어 생존 자체만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사역도 은사와 소명을 구현하는 은총사건이 되지 못하고 일에 치여 생명이 고갈됩니다. 세속적인 권력 놀음, 인정 투쟁에 빠져 시기와 질투, 갈등이 얽히고 한몸살이 생명력을 소진시킵니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우상이 지배하는 집단으로 전락됩니다. 한몸살이 건강한 성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잘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 육화된 하나님나라, 은사와 물질 나눔으로 생성되는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나라 백성은 회년과 하나님나라를 현재화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세속 가치질서를 거스르는 구별된 한몸살이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구체화 됩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을 지속할 자생력이 한몸살이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총만케 하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합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우상에 지배된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전인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또한 불의와 불평등, 분단과 억압, 전쟁과 기만에 저항하는 섬김과 사랑, 생명평화로 구체화 됩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총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한 인격으로 성육신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는 성령사건을 통해 생성되는 한몸살이를 통해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계승됩니다. 성서는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은사와 물질을 함께 나누는 성령사건을 통해 생

성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공동체 건강은 얼마나 크고 많고 화려한 외형을 지니고 사역을 수행하느냐에 의해 증언되지 않습니다. 성령 은사와 물질 나눔을 통해 서로 핏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온전한 사귄과 나눔을 토대로 감사와 찬양, 새로운 생명 사건을 일으키는 헌신(선교)이 이뤄집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구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을 세상에 보내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와 선교는 한 맥락에서 구현되는 사건입니다. 전도와 사회책임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선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건화 됩니다. '가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와보라'하여 하나님나라를 지금 여기, 일상생활 한 가운데서 증언하는 사건으로 구체화 됩니다.

8. 한몸살이를 살리는 것, 위협하는 것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 몸 된 지체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한 몸 된 지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삶입니다. 관계를 생기 있게 하는 힘은 사랑과 공평과 긍휼입니다. 한몸살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교만입니다. 교만은 기준이 자기에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대상화시킵니다. 교만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교만이 작동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세속 가치질서에 대한 욕망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상태로만 은폐되어 있지 않고 결국 한몸살이를 위협하며 폭로됩니다. 한몸살이가 땀 흘려 일구는 새로운 삶과 가치들, 정성껏 살아가는 지체들을 우습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며 드러냅니다. 교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가 신앙하는 삶에서 떠날 때 선명하게 폭로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나라를 살 수 없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9. 새 삶을 가로막는 것들... : 되돌아가려는 욕망, 겸하여 섬기려는 욕망!

하나님나라를 맞이하는 회개는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구체화 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삶, 그 권세를 거부하는 '믿음의 탈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탈주와 도약을 가로막는 것이 삶 전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존 익숙한 삶, 습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낯설고 불편하기 마련이며, 심지어 모호함에서 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일구려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믿음은 모호함에서 오는 불안을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에게 엄습하는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걸림들은 '애굽의식', '되돌아가려는 욕망'입니다. 차라리 애굽, 세상이 편한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겁니다. 이는 '겸하여 섬기려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바알문화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자본, 권력, 제국, 학벌, 부동산, 분단 이데올로기 등 시대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종교인이 양산됩니다. '집단 최면적 우상숭배'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도가 오셨지만, 외면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경배하는 문화를 열심히 반복하지만,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사건이 벌어지면 외면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우상이 강요하는 삶을 거부하는 믿음의 탈주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모든 생명사건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습니다. 문명 전환, 새로운 문명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10. 더불어 영성과 홀로 영성, 공부=기도=노동

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삶을 잘 살 수 없습니다. 지체들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 홀로 영성은 한 몸 된 더불어 영성에 토대합니다. 더불어 영성을 깊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홀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힘이며, 이를 토대로 모든 생명은 서로 관계 맺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뤄지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맺는 사귀와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관계가 깊어 질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

인성이나 영성은 프로그램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 그렇습니다. 인성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 사랑과 책임이 담긴 잔소리들을 통해 훈련됩니다. 인성보다 복잡한 영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을 수련하는 것은 방편적으로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아, 죄 된 본성은 프로그램 뒤에 얼마든지 숨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따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서로를 비추어 주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한 일상의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수련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성령 음성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 안에 있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다 자기를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라고 합니다.(無鑑於水 鑑於人) 지체들에게 비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생기는 신뢰 없이는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한몸살이를 통해 주시는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또한 영성수련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몸과 마음을 닦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책으로만 하려는 지식인의 오래된 정신 질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부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닦는 수련입니다. 노동은 하나님 창조사건에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창조사건입니다. 부름 받은 몫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불어 사는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은 생명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노동과 공부, '항상 배우는 삶의 자세'를 통해 한 생명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해 새롭게 열립니다. 자본과 시장에 종속된 노동과 학습, 생명을 상품으로 소외시키는 노동, 삶으로 순환하지 못하는 관념은 인간을 온전하게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학습과잉, 사유빈곤, 영적 피폐'라는

병적 현상이 고착됩니다. 관계 맺는 모든 생명을 도구와 상품으로 대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힘씁니다. 열심히 외워서 시대우상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한 시대를 주도했던 문명 창발성이 소진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항상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살려는 삶, 그것이 영성 깊은 삶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한 끊임 없는 갈망, 창조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열정과 노동,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성찰과 진중한 실천, 이런 공부와 노동을 통해 영성은 하나님나라를 일구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11. 생활영성수련 : 생활양식과 문명 전환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일상 생활양식에 한 시대 문명과 영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힘은 매우 추상인 듯하지만, 지극히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대우상은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생활양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상생활에 바탕 하지 않은 영성은 공허합니다. 영성수련은 일상생활 관계에 기초할 때 비로소 정직하게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대우상이 강제하는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한몸살이는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생활양식 특히 먹는 것에 있어 구별된 힘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생명밥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몸살이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시대우상이 강요하는 생활양식은 병을 양산하는 체제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 약이 또 다른 병을 주는 죽임순환입니다. 이 순환에 의료자본, 생체권력이 작동합니다.

먹는 것은 문명 전체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일으키는 기점입니다. 자연과 문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세계관을 바꾸고, 건강과 질병, 치유에 임하는 자세를 근원에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부여하신 힘, 생태적 삶의 가치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에 부여하신 자연 치유력, 생명상호간 치유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수련하는 생활영성수련은 몸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근원에서 새롭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밥상, 몸에 나타나는 낯선 현상들과 더불어 중용을 유지하는 삶을 일상에서 꾸준히 만들어가는 생활영성수련을 통해 생명평화가 구현됩니다.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 숨결, 창조 영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생명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12. 배우고 가르치는 삶(교육) : 새로운 주체 양성을 통한 생명력 고양

시대우상이 강제하는 삶을 거부하고 새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또한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에 장악되지 않는 새로운 배움의 내용과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평화를 구현하는 마을을 토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 자녀교육과 부모교육, 몸과 마음을 같고 닮는 생활영성수련이 하나로 어우러진 교육입니다. 한몸살이가 깨닫고 고백한 신앙고백, 철학과 역사, 가치와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공유합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키우는 모든 생명살림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와 터전에서 이뤄지는 생명사건, 생명살림입니다. 산 들 물 바람 온 생명 속에서..., 태중에서..., 밥상에서..., 마당에서..., 책상에서... 이 모든 곳에서 배우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지닌 생명 기운이 더욱 힘차게 약동하도록 돕고 가르칩니다. 삶을 해석하고, 생명력을 고양하는 관념을 만들고, 관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키웁니다. 생명을 억압, 소외, 상품화시키는 세상 권세를 폭로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온생명 신비, 진리에 담긴 경이로움을 갈망하고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함께 실천하며, 다양한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웁니다. 삶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고, 일상을 주체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역량을 연마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명 약동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생명평화가 더욱 풍성하게 구현되는 세상을 향해 함께 꿈꾸고 실천하는 동지가 됩니다.

이는 크게 청년지도력 양성과 자녀 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됩니다.

청년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잇고, 한몸살이를 활력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역사 참여와 연대, 다양한 안팎의 사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세대에 한몸살이 가치와 소명을 구현하는 교육내용과 배움의 틀을 만드는 것은 한몸살이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육 개혁운동이 지닌 현실 가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한몸살이 대안교육을 구현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청년지도력 양성 없이 자녀 교육에만 집중되면 한몸살이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관습화 되어 역동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청년지도력 양성과 한몸살이 자녀 교육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몸살이 안에서 생성되는 안정적인 샘플과 못 생명 기운을 머금은 채 굽이쳐 들어온 새물이 합류하며 한몸살이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 있게 만듭니다.

13.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더불어 사는 삶과 마을’

시대우상이 강요하는 삶에서 탈주해 구별된 삶을 생성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현장에서 이뤄집니다.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생활양식, 결혼임신출산육아, 공부(수련, 치유, 교육), 노동, 놀이 등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욕망을 조작하며 지배합니다.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을 조장합니다. ‘욕망을 조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서로 맞물린 채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시대우상이 주요하게 작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다른 욕망이 생성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성령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로 사는 거듭난 생명(한몸살이)입니다. 세상 가지질서, 우상이 강제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은 혹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삶이라는 현실 자체가 이미 관계 사건입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을 일관되고 지속할 수 있게 하

는 근본 토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교회(한몸살이)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증언됩니다.

일상을 서로 투명하게 비추는 삶이 없으면, 고백과 신념은 기만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니다. 생각은 혁명적인데 삶은 시대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 참 많습니다. 무책임하고 기만하는 삶이 됩니다. 반면 자기 몸, 가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실천하는 것은 동시대 생명 질곡을 외면하는 이기적 삶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 생명 맥락에서 지구적으로 사유하고, 몸이 처한 구체적 맥락에서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상품관계, 경쟁관계로 만드는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걸음은 한 몸 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상품이나 경쟁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 돌보는 관계망, 생활양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을은 하늘 땅, 바람과 물이 어우러져 사람이 살기 좋은 기운을 형성하는 곳에 생성되는 생명살림터입니다. 자연 속 한 생명인 사람이 사회문화 주체로 전환되는 기본 토대입니다. 생명을 키우고(육아) 돌보고(복지) 가르치는(교육) 기본 관계망입니다. 두레, 울력, 품앗이 등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양식을 통해 제도적 획일성이 최소화 된 자치 자족(자립)하는 생활단위입니다. 결혼임신출산육아, 하늘땅살이(농사) 등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들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더욱 잘 깨닫게 합니다. 자본과 생체권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길들여지는 일이면서 동시에 생명사건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생명 존속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생활양식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공동의 고백이나 철학이 집단 인격의 마음이고, 마을은 집단 인격의 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는 마을이라는 공동의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지점에서 자기 이념이나 신념을 구체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사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추동하는 관계망입니다.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교육, 식의주락 생활양식 전환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생명평화를 구현하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생성은 도시 소비문명이 만들어 내는 온갖 생명 질곡을 풀어가는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14. 밝은누리 마을생활

서울 강북 북한산 아랫마을과 강원도 홍천 아미산 아랫마을, 경기도 군포 수리산 아랫마을에서 마을을 회복하며 더불어 삽니다. 마을에서 자연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놀이, 예배와 영성수련, 선교를 함께 합니다. 생명평화가 사라진 생활문화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하나님나라 가치질서를 구현합니다.

마을밥상에서 점심과 저녁 밥상을 함께 합니다. 마을나눔터를 통해 자동차와 생활용품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울력과 품앗이, 두레로 마을을 일굽니다. 마을잔치(결혼/뉘/동지잔치...)를 함께 만들어 즐깁니다. 공동육아, 마을초등학교, 생동중학교, 삼일학림(고등대학통합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가르칩니다. 마을찾집, 마을신문, 마을서원과 도서관, 마을공방과 창작실 등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결하며 속 깊은 사귄 속에서 은총을 누립니다.

비혼 청년들은 <형제/자매방>에서 함께 삽니다. 물론 의무적이지 않고 서로 자율적 필요와 상호판단을 통해 참여합니다. 청년시절에 ‘함께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결혼 후 가정생활에도 큰 유익과 지혜를 줍니다. 또한 결혼,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통해 공고해지기 쉬운 ‘세속 생활양식’, ‘가족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결혼한 가정은 ‘아이 데리고 밤 마실 갈 수 있는 거리’에 함께 모여 삽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육아와 살림 주체에 중심을 둔 상징적 기준입니다. 비혼 지체들과 기혼 지체들이 <마을 수도원>에서 일정한 기간 함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과정은 생활영성 수련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가족이기주의가 구조화 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기본 단위이지만, 동시에 ‘가족이기주의’는 하나님나라 백성을 세속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15. 기초공동체와 마을교회, 분립개척과 연대

밝은누리는 기초공동체 연대체입니다. 기초공동체는 7~10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깊은 사귄과 나눔, 목회상담, 예배, 공부(수련), 실천(총체적 선교)을 함께 수행하는 하나님나라 운동 기초 단위입니다. 독립된 한몸살이(교회)이면서 동시에 보편교회 본질을 내포하는 ‘교회안의 교회’입니다. 각 기초공동체가 지닌 자율성과 연대성은 소통케 하시는 성령 은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눕니다. 서로 잘 알고 돌봅니다. 기초공동체 모임은 말씀나눔과 생활나눔, 기도와 찬양, 삶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목회상담, 밥상나눔으로 진행합니다.

기초공동체를 토대로 대안적이고 변혁적인 마을공동체를 다양하게 만들고 연대하여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기본 사역전략입니다. 새로운 기초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개척할 부르심이 있는 지체들이 함께 개척 주체가 됩니다. 은사와 소명에 따라 함께 개척하고 사역을 공유합니다. 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한몸살이가 함께 부담하고, 이후 자립하면 환원하여 새로운 개척 자금이나 사역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일반 재정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한몸살이가 함께 부담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희생이나 자본력에 의지해 교회를 개척, 운영할 때 발생하기 쉬운 세속적 유혹을 경계합니다. 자본에 종속되는 교회 대형화, 개교회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목회와 교육도 은사에 따라 공유합니다. 은사 독점과 위계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한몸살이(교회) 형태는 지체들 자율성과 주체성을 고양하며,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조직화, 대형화에 따르는 행정, 관리 등에 소모되는 역량을 최소화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삶이 잘 공유되어 교제케 하시는 성령 은총을 생활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개교회주의는 ‘연합과 일치’라는 교회 본질을 훼손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반드시 교회세속화로 귀결됩니다. 특정한 개인 능력, 특정한 개별 교회가 지닌 역량에 의지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우상이 작동하는 주요한 방식에 대한 긴장을 상실하면, 결국 ‘시대 우상에 종속된 교회’로 전략됩니다.

16.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농도상생 마을공동체’

서울(도시)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 하며 새롭고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농민이 지닌 소중함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은 도시, 농촌 어디서 시작되든 생명 토대인 농생활農生活이 지닌 온전한 가치를 깨닫고 복원하는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민은 하늘땅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 중 근본입니다.(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이 농민입니다. 자녀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는 걸 자식 농사라 했습니다.

농민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삶을 만들고, 소비,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모든 삶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생활農生活은 농촌이나 농민이 사는 삶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에 의해 다시 살림 받는 생명순환에 순응하는 생활입니다. 생명 토대인 흙에 터해 생명살림農의 삶을 생명 존재방식(생명순환)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생명은 서로 살리고(相生), 서로 돕는(協力) 살림터인 마을 속에서 온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미래문명 희망은 농생활 영성, 이를 토대로 생성되는 ‘농도상생農都相生 마을공동체’에 있습니다.

농민이 지닌 가치를 상실한 도시문명은 온전한 생명 됨과 생명 상호간 평화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명 현실입니다. 모든 관계를 상품관계로 환원시키고, 경쟁과 소비, 자본증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도시문명이 지배하는 이런 삶은 결국 농촌까지도 도시 소비문화에 종속된 하부단위로 편입시킵니다.

도시 소비를 위한 상품생산으로 전락한 농촌 생산은 국제 식량자본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 또한 국가정책이나 도시 소비자들이 지닌 취향에 따라 농사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어왔던 생명순환 농법을 상실한 채 급격히 노령화 되었습니다. 농토마저도 이미 부동산 투기와 화학농법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농사, 교육, 문화, 복지 등 거의 모든 삶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자본과 도시문명에 심각하게 종속되었습니다. 농촌을 종속시킨 도시문명은 생명 살림과 평화 능력을 근원에서 상실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연대하는 데 있어, 도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처한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문화와 소비취향, 유통시장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농도교류는 문명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지닐 수 없습니다. 도시소비문명을 지배하는 자본이 유기농 시장에 확장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비가 생산이 지닌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생명현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삶을 총체적으로 전환시키고 추동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든, 극복해야 할 과제와 희망을 동시에 품고 전환해 가는 지혜와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소명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우면 새로운 삶을 더욱 철저하게 구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은 매우 무기력합니다. 한 몸 되어 더불어 사는 삶은 깨닫고 고백한 바대로 살도록 돕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토대입니다.

밝은누리는 이런 문제의식과 소명으로 강원도 홍천 아미산 아랫마을에 터 잡고 생명평화마을을 일굽니다. 공동체 귀촌이라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생명농업, 생태건축,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소명을 지닌 지체들이 함께 귀촌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 귀농귀촌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기존 마을 분들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힘씁니다.

서울 인수마을은 청년들에게 하나님백성이 살아갈 구별된 삶과 문화를 증언 교육하고, 도시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 문화, 함께 보육하고 함께 사는 문화를 몸으로 익힙니다. 당면한 역사/사회적 실천을 수행하는 다양한 운동들과 연대합니다.

강원도 홍천 생명평화마을은 농촌에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먹고 자고 입고 즐기는 일상 생활양식 속에서 생명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연구 교육하고 삶으로 실천합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을 토대로 자생력을 키워갑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마을 생활을 토대로 청소년, 청년, 부모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생명평화를 구현하는 한몸살이 삶의 가치와 문화를 교육하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만들어 가는 역량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소명입니다.

서울 인수마을과 홍천 생명평화마을은 긴밀하게 일상적으로 교류합니다. 서로 살려주는 생명순환의 삶을 삽니다. 서울 인수마을에서 나오는 밥상 부산물과 오줌을 홍천마을로 가져와 거름으로 씁니다. 홍천마을은 뒷간에서 나오는 똥오줌과 밥상 부산물을 모아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생명순환농사로 생산한 농산물은 다시 마을밥상에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기초공동체들이 돌아가며 홍천에 가서 함께 일하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농도상생 마을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소명에 따라 분립 주체가 세워지고 각 지역 성격과 정황에 맞는 공동체를 일구며 서로 살리는 관계 망을 확장합니다. 자체적인 소명을 토대로 마을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을 돕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신앙공동체 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돕고 협력합니다.

17. 새로운 꿈과 기도 : 한반도(조선반도) 영구평화지대, 동북아생명평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 생명평화를 선취하고 증언하는 기도이자 실천입니다. 생명평화는 몸과 마음의 평화 속에서 시작되고, 마을 속에서 구체화되고 지속됩니다. 도시와 농촌 마을이 서로 살리는 삶을 회복하고,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 생명평화가 한라에서 백두 넘어 동북아로 굽이치길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20세기 인류의 죄와 오만이 만들어낸 제국주의 침략과 분단,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모두 짊어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종을 통해 온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20세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땅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폭력으로 신음하는 인류에 하나님 생명평화를 전하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분단과 증오의 철책을 걷어내고, 온 생명 더불어 사는 생명평화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핵무기와 전쟁무기를 폐기하고, 한라에서 백두 넘어 비무장지대가 확장되길 꿈꿉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한

모든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판문점에 생명평화 기구를 세우고, 생명평화 샘물을 온 누리에 전하는 땅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좋은 통일로 만드는 것이 전환시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비극의 끝자락을 따라가는 통일이 아니라, 생명평화 새 문명을 움트게 하는 통일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북아와 지구공동체 생명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나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에 토대한 평화’라는 관념은 인류가 오랫동안 속아 온 거짓 평화입니다. 끝없는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토대이고, 역사 속 모든 집단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 하는 논리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실패가 검증된 ‘제국평화’입니다. 강력한 군사력(폭력)이 아니고는 평화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체념에 길들여진 정신과 관습을 넘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를 것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년과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참된 ‘하나님 평화’를 믿고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명입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에 사로 잡혀 신음하는 모든 생명, 생태계가 거짓 번영과 ‘노예 된 평화’라는 굴레에서 해방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총은 노예 된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게 합니다. 서로 살리며 더불어 사는 생활양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생명평화를 누리는 은총이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18. 밝은누리 사역

교육공동체 ‘밝은누리움터’ <http://cafe.daum.net/maeulschool>

하나님나라 생명평화를 구현하는 마을을 토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 자녀교육과 부모교육,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생활영성수련이 하나로 어우러진 교육입니다. 한몸살이가 깨닫고 고백한 신앙고백, 철학과 역사, 가치와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공유합니다.

☞ 공동육아 도토리 어린이집(서울 인수), 공동육아 작은숲 어린이집(강원 홍천), 아름다운마을 초등학교(서울 인수), 온마을 배움터(강원 홍천), 주말/계절/들살이 학교

☞ 생동중학교(홍천)

☞ 삼일학림(홍천) : 고등대학 통합과정, 과목 선택 학점제

필수과목(신앙, 철학수신, 역사, 하늘땅살이(농사), 집짓기, 생활기술과 예술)
선택과목(문학, 수학, 다른 나라 말글, 과학, 검정고시, 수능)

자율과목(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기획해서 공부), 독립학습(2년차 이후 1년 이상)

하늘땅살이움터: 農生活(농생활)연구소+생활영성수련원 <http://cafe.daum.net/agimazung>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 갈 힘을 키우고 수련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하늘땅살이(농사) 하며, 농촌, 농업,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생활양식, 농생활을 실천하고 연구합

니다. 생명순환 농사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립소농을 키우고 연대합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그리고 식량자본과 GMO에서 자유로운 농사를 위해 토박이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함께 합니다.

☞ 생명순환 농사와 토박이 씨앗, 생명밥상과 밥상부산물, 생태뒷간
농생활영성수련, 성경통독수련

공동체지도력훈련원 <http://cafe.daum.net/welife111>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생성을 지원 협력하는 훈련기관입니다. 다양한 생활과 사역 현장에서 기초공동체를 생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님나라 운동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청년지도력 소통과 대안 <http://cafe.daum.net/lordyear>

일상생활과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일관성 있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기독교 청년 지도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부-실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 생활영성을 핵심 주제로 성서, 철학, 역사 등을 함께 공부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생태건축 흙손’ <http://cafe.daum.net/soil-hand>

생명을 살리는 건축, 자연과 호흡하며 생활 터전에 적합한 아름다운 건축을 연구하고 노동합니다. 나무와 흙, 돌 등 생활 터전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건축합니다. 다양한 생태건축 공법, 자연 에너지 등을 연구하고 적용합니다.

아름다운마을밥상(서울 인수마을) - 친환경 유기농 마을식당
오솔길 작은밥상(강원 홍천마을) - 마을 분식집

마을찾집‘마주이야기’(서울 인수마을) <https://www.facebook.com/majueyagi>
‘고운올림’(서울 한신대학원)

디자인 기획회사 ‘그리는 사이’(강원도 홍천)

도자기, 짚풀공예 공방 ‘밝은공방’(강원도 홍천)

생명평화선교 - 생명평화연대 <http://welife.org>

하나님나라운동 가치와 문화를 시민사회에 증언하고 소통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농도상생마을공동체, 한반도 영구평화 영세중립 통일을 통한 동북아 생명평화공동체운동, 언론개혁, 교회개혁, 인권운동, 지역사회 개혁과 복지 등에 함께 합니다.

19.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 한 길을 걸으며...

“나도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이상이야!”, “생각은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 “이정도면 돼!”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불신앙, 체념적 삶의 표현이며, 하나님나라 운동이 지닌 고유한

창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속삭임입니다. 먼저 산 사람들 경험이 하나님나라 도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모두 다음 세대 새로운 도전을 추동하는 지혜로 작용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삶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또한 어떠한 성공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나라를 현실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기준을 자기가 제한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서 가르침을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애통함과 가난함에 처해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에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성서 가르침을 우직하게 따르는 연약한 자들이 겸손히 순종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나라는 전진합니다.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믿음 사건입니다. 하나님나라는 믿는 자에게 보이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나라는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현실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은총 사건입니다.

믿음은 모호함을 뚫고 가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가볍고 무책임한 삶을 만듭니다. 믿음이 지닌 깊이와 힘은 하나님 사건에 직면하는 침묵과 맞닿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침묵과 맞닿은 믿음은 진리를 좇아 사는 삶에 전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진중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침묵은 생명 질곡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문명 속도에 밀려 바빠진 호흡, 기존 관습에 익숙한 삶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힘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한 몸 된 삶을 살며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총입니다. 하나님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사귄, 몸짓, 표정, 눈물과 웃음, 고뇌와 희망, 함께 나누는 밥상, 맞잡은 손을 통해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